

DUKSUNG
WOMEN'S
UNIVERSITY



2023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논술가이드북

DS

더 큰 배움과 기회의 창이 열린 대학, 덕성여자대학교

102년이라는 역사를 써오는 동안 덕성여자대학교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걸어왔습니다. 21세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성과 협업력, 진취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공감하며 뚜렷한 주관을 가진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덕성여자대학교는 “살되, 네 생명을 살아라. 생각하되, 네 생각으로 하여라. 알되, 네가 깨달아 알아라.”고 한 차미리사 선생의 창학이념에 기초한 '자유전공제도'를 통해 더 큰 배움과 기회의 창을 열겠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도전하고 앞서가는 대학, 바로 덕성여자대학교입니다.

CONTENTS

08	I. 2023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입학전형 주요사항
11	II. 고교 교사가 알려주는 2023학년도 논술전형 KEY POINT
15	III. 2023학년도 논술전형 대비하기
17	IV. 2022학년도 논술전형 결과분석
20	V. 2022학년도 논술전형 문제해설
46	VI. 2022학년도 논술전형 합격자 후기



MESSAGE



수험생 여러분!

저는 덕성여자대학교 입학처장 이은옥 교수입니다.

우리 덕성여자대학교는 차미리사 선생님께서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독립유공자가 세운 최초의 학교이자 수도권대학 최초로 전면 자유전공제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혁신의 아이콘이며,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대학입니다.

자유전공제는 학생들이 인문사회, 이공, 예술계열 중 하나로 입학하여 1년 동안 전공을 탐색한 후 2학년 진입 시, 34개 전공 및 학부 중 2개의 전공을 학생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제도로 1,156개의 전공 조합이 가능합니다.

‘천 명의 학생에게 천 개의 길’,

‘나다움’을 찾게 하는 덕성의 혁신 교육은 그 가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2023학년도 우리 대학 논술전형은 수시모집을 통해 105명을 선발합니다. 우리 대학 논술전형의 핵심은 대학교육 과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 및 서술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대학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필수 소양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이 가진 논리적 잠재력을 소중하게 평가하고자 올해 우리 대학은 학생부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논술고사 100%로만 선발합니다.

이번 논술가이드북은 이러한 2023학년도 논술전형 변화에 따른 논술고사의 추이를 가능해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담긴 매우 실질적이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논술고사는 고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 출제 및 검토과정에 고교교사가 참여하여 그 수준과 범위를 검수하고 있으며, 기출문제 및 채점 기준 등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명료하게 공개하고 있으므로 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7월에 실시될 온라인 모의논술고사를 통해 당해연도 출제경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논술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올해 우리 대학 논술고사를 통해 누구나 그 능력이 발휘되는 최적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도전은 다채로운 전공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덕성에서 더 멀리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넘어 자신의 길을 찾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스스로 도전하는 가능성의 캠퍼스, 덕성여자대학교에서 뵙겠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 입학처장 **이은옥**

MESSAGE

안녕하세요?

덕성여자대학교 논술 출제위원장 한우진 교수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생활과 입시 준비에 특별한 정성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 노고를 생각하며, 우리 대학의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몇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교육을 유발한다.” “당일 컨디션과 운에 달렸다.” 논술은 술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학은 논술고사를 고수해 왔습니다. 이는 논술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술활동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상이한 견해를 담고 있는 학술적인 글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학술활동은 다양한 텍스트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평가를 제시하며 자신의 논증을 통해 독자를 설득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의 논술고사는 학술활동의 기본을 반영하면서도 공교육의 틀 안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되어 왔습니다.

2023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논술 출제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금까지 우리 대학이 지켜온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등교육 과정을 통해 다양한 교과에서 여러 학습활동을 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그 과정에서 한 번쯤 고민해 보았을 문제를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교재를 중심으로 출제하고자 합니다. 논술 문항은 교과서 수준의 다양한 지문과 조건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는지를 측정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대학의 논술가이드북과 모의 논술을 참고하여 기출을 중심으로 철저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준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많은 논술 문항을 피상적으로 풀어보기보다 몇 개라도 “다른 사람에게 강의를 한다”는 가정하에 반복 학습하면 논술 실력은 일취월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배경지식이 아니라 나의 이해와 생각을 나의 목소리를 통해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2023학년도 우리 대학의 논술은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출제됩니다. 인문사회계열은 문항당 500자 정도로 인문 1문항, 사회 1문항이 출제될 예정이며 각 문항마다 소문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자수가 많지 않으므로, 제시문을 충실히 분석하고 문항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여 차분히 작성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공통과목(수학Ⅰ, 수학Ⅱ)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이 기조는 올해에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랜 입시의 끝이 멀지 않습니다. 각자 치열하게 준비해 온 만큼,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덕성여자대학교 논술 출제위원장 **한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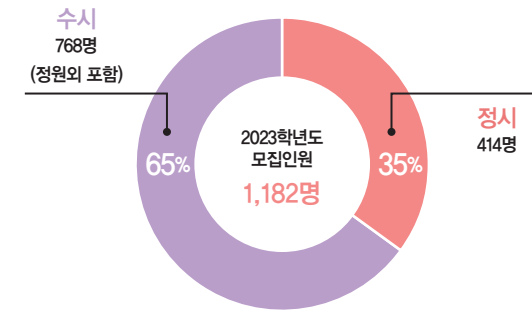
I

2023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입학전형 주요사항

1. 2023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및 전형별 반영요소

논술전형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변경 - 변경 전 : 논술 80% + 교과 20% / 변경 후: 논술 100%
------	--

[2023학년도 수시/정시 모집비율]



[2023학년도 신입학계획]

수시				정시	
학생부교과	논술위주	실기위주	학생부 종합	수능위주	실기위주
학생부 100%	논술	미술 실기	덕성인재Ⅰ (서류형)	수능 100%	미술 실기
고교 추천			덕성인재Ⅱ (면접형)		
			고른기회Ⅱ 사회기여자		
			고른기회Ⅰ 특성화고교		
고른기회Ⅰ 국가보훈대상자 등			고른기회Ⅰ 농어촌학생	체육	
			고른기회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형별 반영요소]

전형유형			선발방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교과)	논술고사	실기고사	서류평가	면접고사	수능최저학력기준
정원 내	학생부 위주 (교과)	학생부100%	일괄합산	100%					○
		고교추천	일괄합산	100%					X
		고른기회Ⅰ 국가보훈대상자 등	일괄합산	100%					X
	학생부 위주 (종합)	덕성인재Ⅰ (서류형)	일괄합산				100%		X
		덕성인재Ⅱ (면접형)	1단계 (4배수)				100%		X
			2단계 (1배수)			60% (1단계성적)	40%	X	
		고른기회Ⅱ _ 사회기여자	일괄합산				100%		X
	논술 위주	논술	일괄합산		100%				○
	실기 위주	미술실기	일괄합산	20%		80%			X
정원 외	학생부 위주 (종합)	고른기회Ⅰ _ 특성화고교	일괄합산				100%		X
		고른기회Ⅰ _ 농어촌학생							
		고른기회Ⅰ _ 기초생활수급자 등							

2. 2023학년도 모집전형 및 모집인원

[2023학년도 수시 모집전형 및 모집인원]

대학	전공	입학 정원	정원내									정원외				계
			학생부위주(교과)			학생부위주(종합)			논술 위주	실기 위주	소계	학생부위주(종합)			소계	
			학생부 100%	고교 추천	고른 기회Ⅰ	덕성인재 Ⅰ	덕성인재 Ⅱ	고른 기회Ⅱ	논술 전형	미술 실기 전형		고른기회Ⅰ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사회 기여자				특성화 고교	농어촌 학생	기초 생활 수급자 등		
글로벌 융합 대학	유아교육과 제외	583	86	77	21	57	80	5	60	—	386	6	28	7	41	427
	유아교육과	37	7	4	—	3	5	—	5	—	24	—	2	—	2	26
과학기술대학		326	47	39	5	28	37	5	40	—	201	3	6	—	9	210
약학 대학	약학과	80	15	—	—	25	—	—	—	—	40	—	—	6	6	46
Art & Design대학		94	—	—	—	—	—	—	—	56	56	3	—	—	3	59
합계		1,120	155	120	26	113	122	10	105	56	707	12	36	13	61	768

※ 수시모집 미충원인원 발생 시, 정원내전형 미충원인원은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 수능위주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하고, 정원외전형 미충원인원은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 정원외전형(해당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2023학년도 정시 모집전형 및 모집인원]

대학	전공	입학 정원	가군			나군			계
			수능 100%	체육	소계	수능 100%	미술 실기	소계	
글로벌 융합대학	유아교육과 제외	581	-	-	-	217	-	217	217
	유아교육과	39	-	-	-	15	-	15	15
과학기술대학		326	110	25	135	-	-	-	135
약학대학	약학과	80	40	-	40	-	-	-	40
Art & Design대학		94	-	-	-	-	44	44	44
합계		1,120	150	25	175	232	44	276	451

※ 수시모집 미충원인원 발생 시, 정원내전형 미충원인원은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 수능위주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하고, 정원외전형 미충원인원은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 정원외전형(해당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3.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적용 전형

- 1) 논술전형
- 2) 학생부100%전형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전형유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100%전형 (약학대학 제외), 논술전형	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과학)[상위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
학생부100%전형 (약학대학)	국어, 영어, 수학, 탐구(과학 2과목 평균) 중 수학을 포함한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으로 미적분/기하 중 택 1 ※ 탐구(과학 2과목 평균)의 경우 소수점 절사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가. 전형유형별 반영교과 및 반영방법

- 1) 학생부100%전형 2) 고교추천전형 3) 고른기회 I _국가보훈대상자 등 4) 미술실기전형

전형유형	반영교과	교과성적 반영방법	점수산출 활용지표
학생부100%전형, 미술실기전형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 중 상위 3개 교과의 각 상위 4개 과목 반영 ※ 단, 각 상위 4개 과목은 총 12단위 이상 이수	석차등급
고교추천전형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 중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전 교과목 반영	
고른기회전형 I _ 국가보훈대상자 등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 중 상위 3개 교과의 각 상위 4개 과목 반영	

※ 3학년 1학기까지의 5개 학기 성적만 반영하며, 성취도 평가만 산출되는 과목은 반영에서 제외

나. 학교생활기록부 등급점수 환산표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100	99	98	97	96	92	86	80	0

다.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 학년별 가중치 없음

라. 반영방법

- 고등학교 간 학력차는 인정하지 않으며 졸업생도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
- 전형유형별로 성적에 반영되는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의 석차등급을 위의 [나. 학교생활기록부 등급점수 환산표]에 따라 등급점수로 환산
- 등급점수를 아래의 성적 산출식에 적용
 - ▶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식 : Σ (반영과목 등급점수 × 이수단위수) ÷ Σ 이수단위수
 - ※ 학생부 교과영역 성적 산출방법은 학생부 성적이 반영되는 모든 전형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형별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로 환산하여 점수 산출

II 고교 교사가 알려주는 2023학년도 논술전형 KEY POINT

인문사회계열

고등학교 교사 김00

1. 덕성여자대학교 논술전형 변화와 의미

2023학년도 논술전형은 작년과 달리(2022학년도 논술 80% + 학생부 20%) 논술고사 점수 100%로 선발한다. 동점자 발생 시 [글로벌융합대학]의 경우 [수능 영어 → 국어 → 수학 영역 등급]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자.

논술고사 일정도 달라졌다. 작년에는 수능일(2021. 11. 18.)이 있는 주의 일요일(2021.11.21.)에 시험을 보았다. 하지만 올해는 수능일(2022. 11. 17.) 기준으로 차주 일요일(2022. 11. 27.)에 논술고사가 진행된다. 수능을 치르는 주에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에는 서울여대를 포함,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한국항공대 등이 있으며, 수능을 치른 날을 기준으로 차주에 시험을 보는 대학은 가천대, 연세대, 한국기술교육대, 경북대, 고려대(세), 부산대, 이화여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광운대, 중앙대 등이 있다.

2023학년도처럼 수능 이후 10일의 시간 여유를 두고 논술고사를 치를 경우, 충분한 준비를 통해 논술고사에 응할 수 있으므로 평균 합격점수가 상승할 수 있다.

2. 덕성여자대학교 논술 합격 Tip

가. 모의논술을 통해 수시논술 대비하라

덕성여자대학교는 모의논술과 수시논술의 출제의도, 평가기준, 예시답안 구조가 유사하다. 모의논술을 통해 사교육 없이 수시논술을 대비하라는 출제진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 따라서 모의논술에 적극적으로 응시하고, 출제의도 및 평가기준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수시논술에서도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다. 아래 표를 통해 양자의 유사성을 직접 확인해보자.

모의논술		수시논술
제시문	가. <전광용, 꺼삐딴 리> – 소설 나. <밀그램, 전기 충격 실험> 다. <플라톤, 변론> 라. <소로, 시민 불복종>	가. <김재영, 코끼리> – 에세이 나. <정일근, 쌀, 오른손잡이의 슬픔> – 시 다. <박노해, 이불을 꿰매면서> – 시 라. <손봉호, 나는 누구인가> 마. <마사 누스바움,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
문제	<가>의 주인공과 <나>의 실험 참여자(교사 역할자)의 공통적인 모습을 설명한 후, <다>와 <라>의 논지를 종합하여 이를 평가하시오. (500자) [100점]	<가>, <나>, <다>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공통점을 서술한 후, 그 공통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 교육의 방향을 <라>, <마>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술하시오. (500자 내외) [100점]
답안 구조	<가, 나 공통점> <가> 주인공 : 식민지 현실(상황론)을 빌미로 개인 이익 추구 정당화 <나> 실험 참여자 : 지시에 맹종하여 타인에게 고통 <가>, <나> 종합 : 부정적 외부 상황에 순응, 비윤리적 행위	<가, 나, 다 공통점> <가> : 인종차별 <나> : 지역차별 <다> : 성차별 <가>, <나>, <다> 종합 : 약자, 소수자 차별
	<다, 라 각 시사점 + 공통점> <다> : 비판적 사고, 쾌락보다 훌륭함 추구 <라> : 부당한 법률에 복종하기 전에 개인 양심으로 판단 <다>, <라> 종합 : 부정적인 외부 상황에 저항하는 삶 강조	<라, 마 시사점 + 공통점> <라> : 동등성에 대한 인식 <마> : 차이에 대한 인식(비판적 사고) <라>, <마> 종합 : 의식적 차원의 해결책 강조

나. 채점 기준에 일치하는 키워드를 찾아라

덕성여자대학교는 짧은 글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글의 전체적인 흐름에 신경 쓰기에 앞서, 핵심어(키워드)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단, 채점 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지문의 직접 인용이 두드러짐’에 해당하는 답안을 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결국, 채점 기준에 부합하는 핵심어를 적시하고, 내면화된 문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이해력(40) 채점 기준(2021학년도 수시논술 문항1)

	채점 기준
등급	*지문과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① 제시문 <가>: 다문화가정 출신 아이에 대한 인종차별(핵심어) 의 상황 이해
	② 제시문 <나>: 경상도 사투리를 희화화하는 지역차별(핵심어) 의 상황 이해
	③ 제시문 <다>: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 따른 여성 차별(핵심어) 의 상황 이해
	④ 제시문 <라>: 나와 너의 주체로서의 동격 관계(핵심어) 에 대한 이해와 상호 존중
	⑤ 제시문 <마>: 비판적 질문(핵심어) 을 통한 개방적 사고와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방안 모색
A	①, ②, ③, ④, ⑤의 핵심 내용 또는 핵심어가 정확하게 포함.
B	①, ②, ③, ④, ⑤ 중 넷이 정확하게 포함. 하나가 미흡.
C	①, ②, ③, ④, ⑤ 중 셋이 정확하게 포함. 둘이 미흡.
D	①, ②, ③, ④, ⑤ 중 넷이 미흡. 전반적으로 지문의 직접 인용 이 두드러짐.
F	미작성 또는 매우 부족하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답안.

3. 고난도 문항 대비법

최근(2022학년도 수시논술) 덕성여자대학교의 논술 경쟁률은 급격히 상승했다(글로벌 융합대학 기준 [2020학년도 24.61:1] ⇨ [2021학년도 32.46:1] ⇨ [2022학년도 56.5:1]). 관련하여, 출제진은 난도를 높여야겠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흔적은 논술 문제에 드러난다. 끝으로, 고난도 문항의 출제원리를 이해한 후, 기출문제를 통해 반복 훈련한다면, 합격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 난도 높이기 전략! 두 개의 개념을 세 개의 제시문에 적용하라!

[2022학년도 수시논술 문제 1]

<가>를 활용하여 밑줄 친 ㉠, ㉡, ㉢의 심리 상태를 각각 설명하시오. (500자 내외) [100점]

<가> 요약

○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과정 두 가지

○ 감정이입의 개념

○ 연민의 개념

↓

난도를 높이는 전략 : 기준 제시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찾아라!

↓

㉠ ⇨ 감정이입

㉡ ⇨ **(감정이입도 연민도 아닌 무심함)**

㉢ ⇨ 연민

자연계열

고등학교 교사 이OO

1. 덕성여대 자연계열 논술의 특징

2023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논술전형은 덕성여대를 포함해 36개 대학에서 11,016명을 모집한다. 인문논술만 실시하는 1개 대학을 제외하면 자연계열 논술전형은 35개 대학으로 모집 대학수는 전년도와 같지만 모집 인원은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덕성여대의 과학기술대학 수시 논술전형의 모집 인원은 40명으로 작년과 같아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올해 덕성여대 논술전형의 주요 변화는 논술전형 반영 비율이다. 전년도까지 학생부(교과) 20%, 논술고사 80%였던 논술전형 반영 비율이 논술고사 100%로 변경되면서 학생부(교과)의 영향이 사라졌다. 논술고사의 비중이 100%가 되는 이러한 변화는 내신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나 정시 위주의 수능 준비에 집중한 학생들에게도 수시 논술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수시 논술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다. 덕성여대 역시 2021학년도 대입과 2022학년도 대입 두 번에 걸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 상황이다. 덕성여대의 2023학년도 대입 논술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상위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70 이내로 이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는 14개 대학을 제외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는 대학 중 가장 완화된 기준이다. 따라서 덕성여대 자연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부담이 적게 적용되며 과학기술대학의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볼 때,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탐구에서 사회 탐구를 선택해도 무방하다.

2023학년도 덕성여대 논술고사 일정이 변화된 것도 수험생들에게는 덕성여대 논술고사에 도전할 수 있는 주요 사항으로 적용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11월 17일(목) 수능 시험 이후 다음 주 11월 27일(일)에 덕성여대 논술고사가 있다. 수능을 보고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

덕성여대 자연논술은 수리논술만 진행된다. 2023학년도 덕성여대 수시모집요강을 보면 수리논술의 출제범위는 진로선택 과목(기하 포함)을 제외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이다. 이는 수학, 수학Ⅰ, 수학Ⅱ을 기본으로 하고 수능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역시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으로 수능이 선택형으로 바뀐 이후인 작년의 출제 경향을 보면 수능 선택과목인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보다는 수학, 수학Ⅰ, 수학Ⅱ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술이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술고사는 총 2개의 문항으로 출제가 되며 각 문항에는 2~3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된다. 보통 첫 번째 소문항은 전체 문항을 해결하는 도입 문항으로 제시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게 출제된다.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 문항 배점은 높기에 이 첫 번째 소문항에서 틀리면 논술전형에서의 합격에 어려움이 있으니 쉬운 문항일수록 풀이에 신경을 써 잘 작성해야 한다. 두 번째 소문항은 첫 번째 소문항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조건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출제된다. 맨 마지막 소문항은 그 문항에서 요구하는 수학적 상황을 종합하는 형식으로 출제되고 대체로 가장 많은 배점이 부여된다. 90분의 고사시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 6개의 소문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시간의 분배 역시 중요하다.

2. 덕성여대 수리논술 대비 요령

가. 교과 개념 학습을 충실히 하자.

덕성여대 수리논술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 수학의 기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항의 출제 빈도가 높다. 따라서 수학적 개념 이해는 기본이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정리나 공식 등에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작성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즉, 교과 개념 학습을 충실히 하고 이를 문제에 적용해 해결하는 과정을 충분히 학습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지필고사와 수능시험은 기본 개념을 활용해 답을 찾는 문항이 주를 이룬다면 논술고사는 풀이의 과정과 논리적인 서술이 중요한 시험이다. 따라서 문항의 풀이과정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을 길러 이를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훈련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나. 모의 논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덕성여대 수리논술 문항들은 모의 논술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본 논술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당해 연도의 모의 논술과 본 논술 두 시험의 상관관계가 높기에 모의 논술 문제를 통해서 출제 범위나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으로 수능 선택형으로 바뀌면서 처음으로 실시된 논술이 2022학년도 대입이다. 이에 덕성여대의 작년 모의 논술 문항과 본 논술 문항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2학년도 덕성여대 모의 논술과 본 논술에 출제된 수학 개념]

	모의 논술		본 논술	
	과목	주요 개념	과목	주요 개념
문항 1-1	수학	두 점 사이의 거리, 고차 방정식	수학Ⅱ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문항 1-2	수학Ⅱ	접선의 방정식,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수학, 수학Ⅱ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문항 1-3	수학	경우의 수	수학Ⅱ	함수의 최솟값
문항 2-1	수학	평면 좌표	수학Ⅰ	삼각함수
문항 2-2	수학Ⅰ	등비수열과 그 합,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학Ⅰ	수열의 합, 로그
문항 2-3	수학Ⅰ	수열의 합, 로그	수학Ⅰ, 수학	등비수열, 직선의 방정식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의 논술의 문항 1과 문항 2의 주요 개념이 본 논술에서도 대부분 그 기초를 유지하며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덕성여대의 경우 모의 논술 답안제출 선택순으로 채점 결과를 응시생들에게 제공하고 있기에 모의 논술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응시해 본 논술고사를 대비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III

2023학년도 논술전형 대비하기

1. 2023학년도 논술고사 특징

- 논술전형 전형요소가 논술고사 성적 100%로 변경(전년도까지 논술 80% + 교과 20%)
- 선발인원 및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
- 교과서에 나온 주제문이나 주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논술할 수 있도록 출제할 예정

2. 2023학년도 논술고사 개요

가.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위 : 명)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글로벌융합대학(유아교육과 제외)		60
글로벌융합대학(유아교육과)		5
과학기술대학		40
합 계		105

나.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여자

다. 전형방법 및 수능최저학력기준

전형유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논술고사	
논술위주	100%	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과학)[상위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

라. 논술고사

- 논술고사 일자

고사장 및 일정 안내	논술고사	비고
2022. 11. 22.(화)	2022.11.27.(일)	• 지원자가 직접 고사장 및 일정을 확인해야 하며, 대학에서는 개별 연락하지 않음 • 고사장 및 일정은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enter.duksung.ac.kr)에 게시

- 고사형태 : 제시된 지문을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답안을 작성
- 출제구분 : 글로벌융합대학[인문사회계열], 과학기술대학[자연계열(수리논술)]
- 고사시간 : 90분

- 출제범위
 - 계열 공통 : 교과서에 나온 주제문이나 주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 출제
 - 자연계열 : 수리논술의 경우 기하 제외
- 문항 수 및 답안 글자수
 - 문항 수는 2문항으로 각 문항별로 소문항이 있을 수 있음

구분	글로벌융합대학[인문사회계열]	과학기술대학[자연계열(수리논술)]
문항 수	2문항(소문항 최대 3문항)	2문항(소문항 최대 3문항)
답안 글자수	문항당 500자 이내(총 1,000자 이내)	제한 없음

3. 대비전략

〈공 통〉

가. 2023학년도부터 논술전형이 논술고사 성적 100%로 변경되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저조한 학생도 논술전형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짐

나. 전년도부터 완료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올해도 유지됨에 따라 수학생력시험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도 충분히 지원가능

다. 모의논술고사의 출제기조가 본 논술고사에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모의논술고사를 통해 대비

〈인문사회계열〉

가. 500자 내외의 짧은 논술 두 문항을 90분에 쓰는 유형이므로 짧고 논리적인 글을 분석적으로 읽고 쓰는 연습을 통해 논술 시험에 대비하는 것을 권장

나. 교과서 및 EBS 교재와 연계된 지문을 활용하여 출제되므로 충실한 수능 준비가 곧 논술 시험 준비로 연결

〈자연계열〉

가. 수능공통범위(수학Ⅰ, 수학Ⅱ)에서 주로 출제되며, 활용된 수학적 개념들이 어려운 심화내용보다는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개념들이 주로 출제

나. 기하를 제외한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연계하여 출제되기 때문에 1,2학년들은 개념학습과 심화 학습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고 3학년들은 수능 준비를 하면서 논술 준비하는 것을 권장



IV 2022학년도 논술전형 결과분석

1. 논술전형 주요 사항

- 높아지는 경쟁률 : 최초경쟁률 및 실질경쟁률이 상승하는 추세
- 논술 100%로 변경 : 논술고사의 변별력이 커져 논술전형 취지에 맞게 운영됨

2. 모집인원 및 경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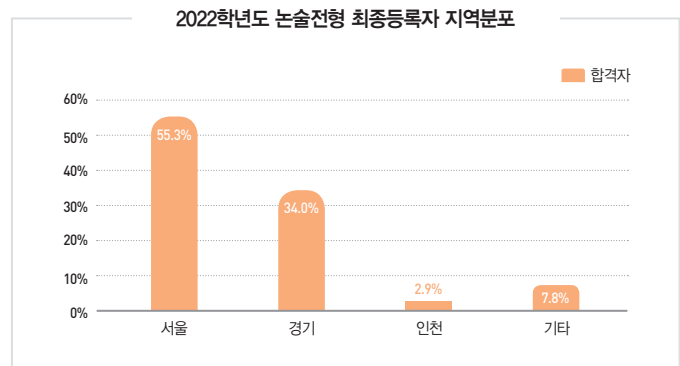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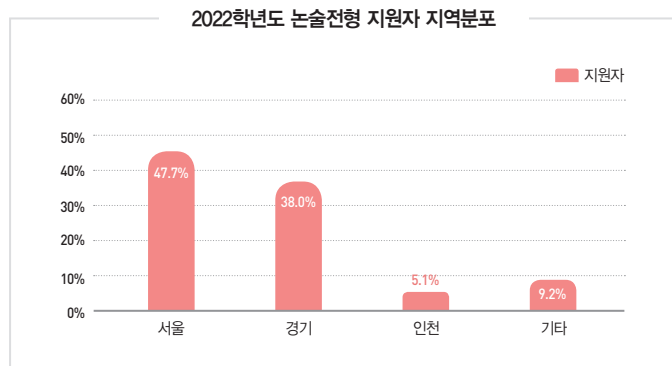
[논술전형 최근 2년 경쟁률]

전형	구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모집인원	지원자	경쟁률	모집인원	지원자	경쟁률
글로벌융합대학 (유아교육과 제외)	최초경쟁률		60	3,387	56.45:1	127	4,122	32.46:1
	실질 경쟁률	결시제외 수능최저 충족인원		2,722	45.37:1		3,021	23.79:1
				1,838	30.63:1		2,233	17.58:1
글로벌융합대학 (유아교육과)	최초경쟁률		5	211	42.20:1	6	174	29.00:1
	실질 경쟁률	결시제외 수능최저 충족인원		157	31.40:1		124	20.67:1
				90	18.00:1		96	16.00:1
과학기술대학	최초경쟁률		40	1,071	26.78:1	77	1,625	21.10:1
	실질 경쟁률	결시제외 수능최저 충족인원		799	19.98:1		1,249	16.22:1
				611	15.28:1		960	12.47:1

- 2022학년도 논술전형의 최초경쟁률(44.47:1)은 타 전형에 비해 높다.
[학생부100% 15.34:1 / 덕성인재Ⅰ 15.08:1 / 덕성인재Ⅱ 12.03:1]
- 결시자 및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자를 제외한 지표인 실질경쟁률이 최초경쟁률보다 감소했지만 2021학년도부터 완료된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인하여 최초경쟁률 및 실질경쟁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3. 지원자 및 최종등록자 지역별 분포

- 지원자 및 최종등록자 90%이상 수도권 지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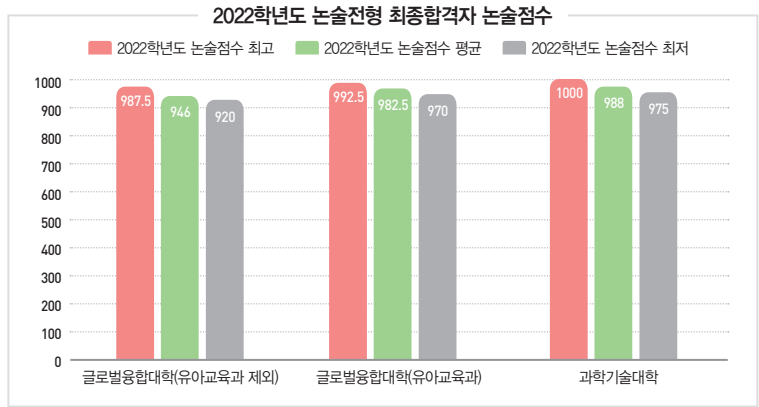


4. 논술/교과성적 현황

- 2022학년도 논술전형 합격자 논술점수 전년대비 점수 상승
 - 인문사회계열 평균 약 16점, 자연계열 평균 약 50점 상승하여 난이도에 대한 부담완화
- 지난 3개년 논술전형 합격자들의 학생부등급 평균은 큰 변동 없으며, 과학기술대학만 평균 1등급 상승 – 논술전형에서 내신성적보다 논술성적이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

- 본교 논술전형은 교과서에 나온 주제문이나 주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논술할 수 있도록 출제하기 때문에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본교 논술가이드북을 활용한다면 논술전형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특히 자연계열 수리논술은 2021학년도부터 난이도 조정을 통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했기에 작년 기출문제와 올해 실시될 모의 논술고사를 참고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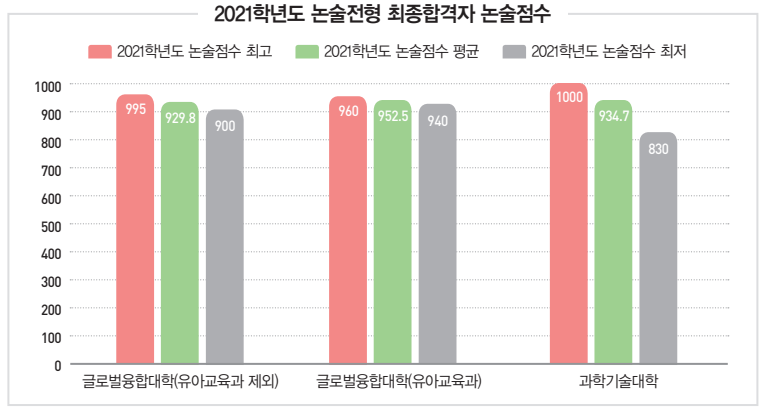
※ 올해부터 학생부 교과성적이 반영되지 않고 논술고사 성적 100%로 변경되니, 아래 학생부 등급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 바랍니다.



논술전형 최종합격자 학생부 등급

모집단위	2022학년도		
	최고	평균	최저
글로벌융합대학(유아교육과 제외)	2.8	4.2	6.5
유아교육과	2.5	3.7	4.3
과학기술대학	2.4	3.7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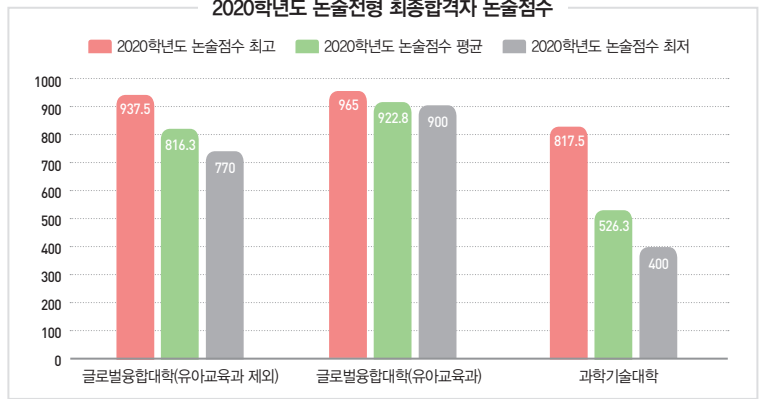
※ 상위 3개 교과의 각 상위 4개 과목 중, 가장 성적이 좋은 12개 과목만 반영



논술전형 최종합격자 학생부 등급

모집단위	2021학년도		
	최고	평균	최저
글로벌융합대학(유아교육과 제외)	1	4.6	7.3
유아교육과	2.4	3.9	4.8
과학기술대학	3	4.6	7.7

※ 상위 3개 교과의 각 상위 4개 과목 중, 가장 성적이 좋은 12개 과목만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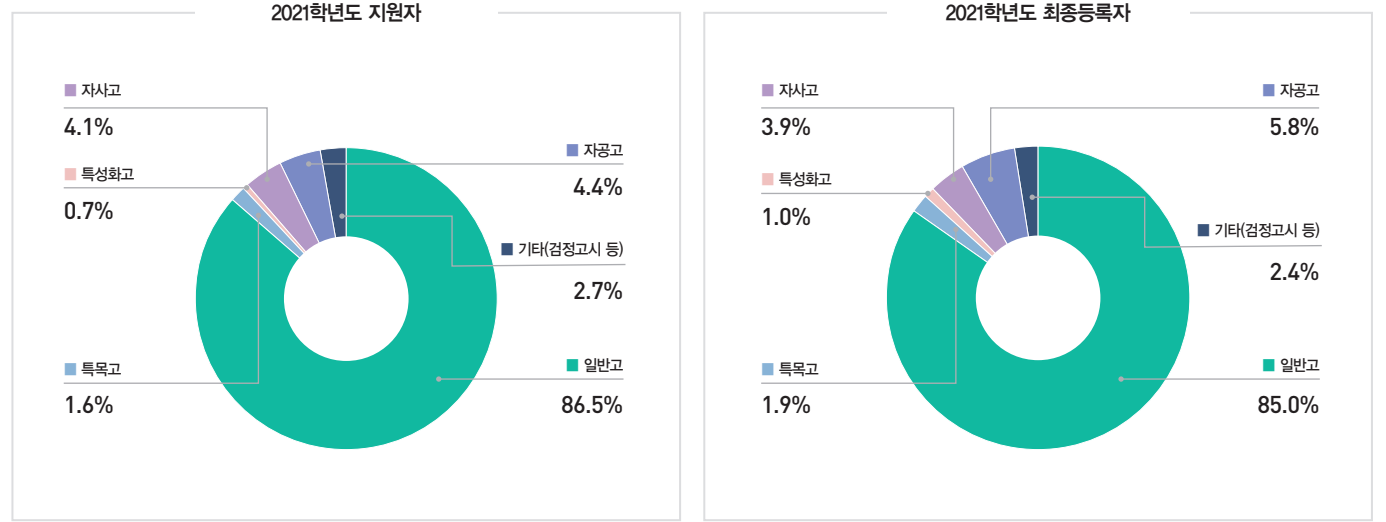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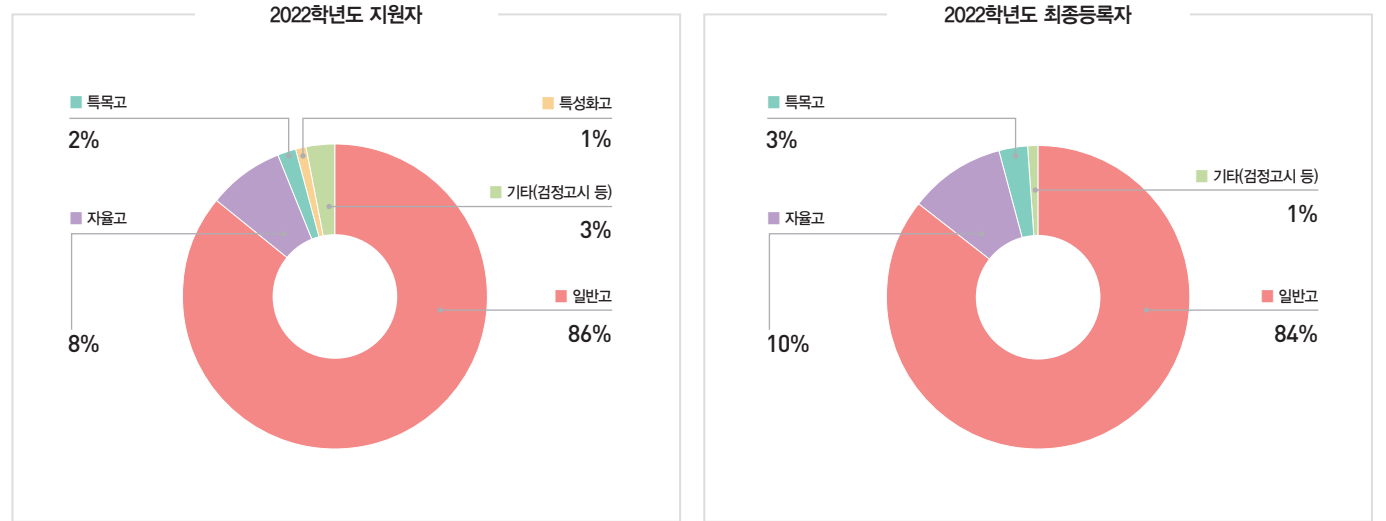
논술전형 최종합격자 학생부 등급

모집단위	2020 학년도		
	최고	평균	최저
글로벌융합대학(유아교육과 제외)	2	4.5	7.6
유아교육과	2.8	3.9	5
과학기술대학	3.1	4.7	7.2

※ 상위 3개 교과의 각 상위 4개 과목 중, 가장 성적이 좋은 12개 과목만 반영

5. 논술전형 지원자, 최종등록자의 고교 유형별 현황

- 2022학년도 최종등록자의 약 84%가 일반고 출신이며 10%가 자율고, 3%가 특목고 출신 학생이었다.



V

2022학년도 논술전형 문제해설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해설 및 채점기준(인문사회계열)

[덕성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문항번호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고전], [문학], [독서], [논리], [철학]
	핵심개념 및 용어	감정이입(empathy), 연민(compassion)
예상 소요 시간	45분/전체 90분	

2. 문항 및 자료

〈가〉 연민(compassion)은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불행을 겪고 있다는 인식에 의해 초래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민을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괴로움에 대해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보았다. 연민은 세 가지의 인지적 필요조건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고통이 사소하기보다는 심각한 것이라는 믿음 또는 평가이다. 두 번째는 해당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다. 세 번째는 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의 가능성이 고통을 겪는 사람의 가능성과 흡사하다는 믿음이다.

먼저 ‘심각함’을 살펴보자. 연민은 다른 주요한 감정과 마찬가지로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문제의 인간이 잘 사는 것과 관련해 어떤 상황이 중요하다는 인지를 포함한다. 이 점은 직관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칫솔이나 종이집게 같은 사소한 물품 또는 심지어 손쉽게 대체 가능한 중요한 물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연민을 보이거나 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문제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심각하다는 판단, 즉 상황의 심각성이 크기를 갖고 있다는 판단이 우리의 정서적 반응 자체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당함’을 살펴보자. 누군가를 딱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가 겪고 있는 곤경에 그 스스로의 책임이 없거나 과중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 잘 못으로 인해 슬픔에 이르게 되었다고 믿는 한 그를 딱하게 여기기보다는 꾸짖고 질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도 비슷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자. 연민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겪으리라고 예상되는 불행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고통을 얼마간 경험하고 이해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고통을 겪거나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연민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반면 감정이입(empathy)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든 특별히 가치평가하지 않고 상상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감정이입은 대개는 숙련된 메소드 연기자의 정신적 준비와 비슷하다. 그것은 고통 받는 사람의 상황을 참여적으로 행위화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 연기자 자신은 고통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과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는 일종의 ‘이중적 주목’이, 즉 고통 받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상상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확실하게 나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의식을 간직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인다. 심리학과 정신분석 문헌에서 분석가가 환자에게 표하는 공감뿐만 아니라 환자 자신의 공감 능력을 논하면서 가장 흔하게 감정이입이라고 묘사되는 것이 이러한 종류의 이중적 주목이다.

— 마사 누스바움, 감정의 격동

〈나〉 어느 날 제선왕(齊宣王)이 당상(堂上)에 앉아 있었는데 소를 끌고 당하(堂下)로 지나가는 하인이 있었다. 왕이 이를 보고 물었다.

“소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새로 종(鍾)을 주조(鑄造)하였는데, 이 소를 죽여 그 피로 틈을 메우기 위해 데려가는 중입니다.”

왕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 소를 놓아주도록 하여라. 나는 그 놈이 두려워 벌벌 떨며 죄 없이 사지(死地)로 나아감을 차마 보지 못하겠느니라.”

하인이 대답했다.

“전하, 그러면 짐승의 피를 종의 틈에 바르는 혼종(罇鍾)*의 예를 폐지하오리까?”

왕이 말했다.

“어찌 혼종의 예를 폐지할 수 있겠는가? ㉠소를 양(羊)으로 바꾸어 쓰도록 하여라.”

— 맹자(孟子)

* 혼종(罇鍾) : 새로 종을 주조하여 완성되면, 짐승을 잡아 피를 내어서 그 틈에 바르는 것을 말함.

〈다〉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 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찢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싸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로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백석, 수라(修羅) 1936년 작(作)

【문제 1】

〈가〉를 활용하여 밑줄 친 ㉠, ㉡, ㉢의 심리 상태를 각각 설명하시오. (500자 내외) [100점]

3. 출제 의도

인간은 느끼고 생각한다. 열정적일 때도 있고 냉정할 때도 있으며, 뜨거운 감정을 표출할 때도 있고 냉철한 이성을 유지할 때도 있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변화가 가득하다. 우리 내면의 정신세계는 그 자체로 변화하기도 하지만 외물의 자극에 반응하기도 한다. 인간에 대한 의문, 사회에 대한 관심,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각자의 내면에 귀를 기울인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일련의 법과 제도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긍정을, 어떤 사람들은 부정을 표출한다. 이러한 반응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때도 있지만 불합리하거나 감정적일 때도 있다. 차가운 이성의 논리로 토론할 때도 있지만 뜨거운 감정의 격동에 의해 선택이 이루어질 때도 있다.

본 문항은 수험생들이 격동적인 인간의 감정을 합리적으로 분석해보길 기대하며 출제되었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핵심적으로 고민해 볼 대상은 연민의 감정이다. 본 문항은 제시문 〈가〉의 연민이라는 개념에 대한 수험생의 이해를 토대로 〈나〉의 제선왕(齊宣王)과 〈다〉의 시적화자의 행위와 감정을 분석하길 요

구하였다.

제시문 〈가〉는 『감정의 격동』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미국의 고전철학자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은 인간의 감정 가운데 연민(compassion)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연민은 타자가 불행을 겪고 있다는 인식에 의해 초래된 고통스런 감정이다. 연민은 세 가지 인지적 필요조건을 지닌다. 첫째,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타자의 고통을 심각하다 인식해야 한다. 둘째, 감정의 주체가 타자의 고통에 대해 그것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셋째, 연민이라는 감정의 주체가 자신도 타자와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상 세 가지 인지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러한 감정을 연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연민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과 차이를 보이는 감정으로 감정이입(empathy)이 있다. 감정이입은 주체가 타자의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자신의 상상을 동원하여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이입에는 이른바 ‘이중적 주목’이 요구되는데 이는 주체가 고통 받는 타자의 위치가 어떨까 상상하는 것과 동시에 주체인 ‘나’는 분명히 고통 받는 타자의 위치에 있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중적 주목의 상태로서 감정이입은 연민과 비교하면 그 전 단계에 해당한다 말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동양의 고전 『맹자(孟子) 양혜왕장구상(梁惠王章句上)』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해당 부분은 맹자가 제선왕(齊宣王)에게 간쟁한 내용으로 이른바 ‘곡속장(穀棘章)’이라 불린다. ‘곡속’은 벌벌 떨어 두려워하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인데, 혼종(罍鍾)을 위해 끌려가는 소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소를 불쌍하게 여긴 제선왕이 양으로 대체할 것을 명령한 일화에서 유래한 것이다.

곡속장에서 맹자는 ‘왕도(王道)를 물어본 제선왕에게 이 일화를 근거로 왕이 동물인 소에게 ‘인’(仁)의 단서(端緒)인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발휘하여 그것을 살린 것이라며 그의 마음을 해석해준다. 이어서 맹자는 왕이 왕도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더불어 맹자는 왕에게 가까운 것은 인간인 백성들인데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동물인 소에게 마음을 쓰는 것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우선 신경 쓸 것을 간언하였다.

제시문 〈가〉를 통해 제시문 〈나〉의 제선왕의 행위와 그것을 촉발시킨 감정을 분석할 수 있다. 제선왕은 우연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소를 목격한 후 그것이 불쌍하다는 감정, 즉 ‘측은지심’이 발동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를 죽이지 않도록 행동하였다. 대신 왕은 자신이 목격한 소 대신 양으로 대체하도록 명령한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제선왕이 소를 불쌍하게 여기게 된 감정의 본질이 연민이 아닌 감정이입임을 알 수 있다. 제선왕이 소를 불쌍하게 여긴 감정은 연민의 세 가지 인지적 필요조건 가운데 심각함과 부당함은 충족한다. 그러나 왕이 소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가변성에 대한 인식은 결여되어 있기에 연민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보지 못한 양으로 소를 대체하는 것에 머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선왕의 감정은 감정이입의 결과물임이 확인된다.

제시문 〈다〉는 백석(白石, 1912~1963)이 1936년 창작한 〈수라(修羅)〉라는 제목의 시이다. 시적화자는 방바닥에 내린 거미들을 통해 세 번의 감정적 변화를 겪는다. 먼저 시적화자는 방바닥에 내려온 ‘거미 새끼’를 무심코 바깥으로 쓸어버린다. 여기서 그는 무심한 감정의 상태를 보인다.

조금 전에 바깥으로 쓸어버린 거미보다 큰 거미가 나타나자 시적화자는 그것이 ‘작은 새끼 거미’의 어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감정적 동요를 겪는다. 그는 차가운 바깥이지만 그래도 새끼 거미가 있는 바깥으로 ‘어미 거미’를 내보내며 가슴이 찢릿해지는 서러움을 느끼게 된 것이다.

어미 거미가 새끼 거미를 찾는 모습을 보고 느꼈던 고통스런 감정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앞에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나타난다. 시적 화자는 무척 작은 새끼 거미에게 손을 내밀지만,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어미 거미와 헤어져 울고불고 할 것이라 생각하며 더욱 서러운 감정에 빠져든다. 이제 시적 화자는 거미를 쓸어버리지 않고 ‘보드라운’ 종이에 받쳐 바깥으로 보내주며 거미 가족이 재회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시의 제목 ‘수라’는 ‘아수라(阿修羅)의 준말로 싸우기를 좋아하는 귀신을 가리키는데 동시에 서로 싸우는 저승의 수라 세계를 뜻하기도 한다. 시적화자는 뽼뽼이 흩어진 거미 가족을 보며 슬퍼하는데, 이는 거미 가족의 비극에 마음 아파하는 것과 동시에 이산하게 된 시적화자의 가족을 떠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가족을 흩어지게 만든 수라 세계, 즉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애도하며 하루빨리 이 세계가 극복되어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제시문 〈가〉를 통해 제시문 〈다〉의 시적화자의 행위와 그것을 촉발시킨 감정을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시적화자는 ‘아무 생각 없이’ 거미 새끼를 문밖으로 쓸어버렸다. 이 단계에서 시적화자는 거미에 대해 무심한 상태, 즉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감정이입도 연민도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시적화자의 감정 상태는 큰 거미의 등장으로 커다란 동요의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시적화자는 큰 거미와 작은 거미가 사실은 가족 관계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그러기에 앞서 무심코 쓸어버린 자신의 행위가 새끼 거미와 어미 거미에게 심각한 이산의 고통을 가한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시적화자는 거미 가족에게 이러한 고통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 부당하다 생각한다. 그러기에 어미 거미를 새끼 거미가 있는 바깥으로 보내준 것이다. 이 상황에서 시적화자는 가슴이 찢릿한 서러움을 느낀다.

이제 무척 작은 새끼 개미가 나타나자, 시적화자는 앞서 자신이 흩어 놓은 새끼 거미와 어미 거미가 그 무척 작은 새끼 거미와도 가족 관계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이 엄마와 누나나 형 그리고 동생의 가족 관계임을, 즉 인간과 마찬가지로인 것처럼 이해하게 된다. 이는 거미 가족의 이산과 인간 가족의 이산이 동일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상의 시적 화자의 감정 변화는 제시문 〈가〉에 언급된 연민의 세 가지 인지적 필요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민의 감정이라 할 수 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문항 및 제시문		관련 성취기준
제시문 〈가〉	교육과정	[독서], [심화국어], [논리], [철학]
	성취기준 성취수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심국01-02]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12논리05-05] 비판적 읽기, 창의적 문제 설정 및 해결, 논리적 서술로 이루어지는 논리적 글쓰기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논술한다. [12철학01-01] ‘고등학생이면서 청소년인 나’의 일상적 삶과 공부의 현실에서 철학적 문제들을 발견함으로써 근본적 문제와 마주하는 경험을 체득한다.
제시문 〈나〉	교육과정	[고전], [독서], [논리]
	성취기준 성취수준	[12고전02-03] 현대 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고전을 재해석하고 고전의 가치를 주체적으로 평가한다. [12고전04-01] 고전 읽기의 생활화를 통해 바람직한 삶에 대해 탐구하고 인성을 함양한다.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논리05-05] 비판적 읽기, 창의적 문제 설정 및 해결, 논리적 서술로 이루어지는 논리적 글쓰기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논술한다.
제시문 〈다〉	교육과정	[국어], [문학], [논리]
	성취기준 성취수준	[10국어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12논리 05-05] 비판적 읽기, 창의적 문제 설정 및 해결, 논리적 서술로 이루어지는 논리적 글쓰기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논술한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제시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기타	〈가〉	감정의 격동	마사 누스바움	새물결	2015	545-622	－	재구성
기타	〈나〉	맹자집주	성백효 역	전통문화연구	1991	31-43	－	재구성
교과서	〈다〉	수라(修羅)	백석	2022 EBS 수능특강	2021	233	－	－

5. 문항 해설

제시문	해설
(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과정은 감정이입(empathy)과 연민(compassion)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심리 작용으로 나타난다. 감정이입(empathy)은 타인의 감정을 본인의 것인 양 상상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마치 정신과 의사가 본인의 경험이 없어도 우울증 환자의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것처럼, 감정이입은 상대방의 처지를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단지 참여적으로 상상하는 데 그친다. 반면에 연민(compassion)은 타인의 부정적 상황과 감정에 자신을 대입하여 자신을 상대방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감정이입을 넘어 비로소 연민이 일어날 수 있다. 첫째, 상황의 심각성. 타인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 둘째, 상황의 부당성. 타인이 고통을 겪는 상황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과중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경우 부당성은 배가된다. 셋째, 나도 그러럼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혹은 염려의 마음이다.
	마사 누스바움, 『감정의 격동』
(나)	유가 전통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맹자』, 그 중에서도 유가의 핵심 사상인 ‘인(仁)’의 기반이 되는 ‘측은지심’의 단초를 보여 주는 제선왕(齊宣王)편의 일부이다. 제선왕(齊宣王)은 짐승의 피를 종의 뜬에 바르는 혼종(罍鍾) 의식의 희생물인 소가 끌려가는 모습을 접하고 소를 풀어주라 한다. 하지만 소의 방생이 혼종 의식의 폐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소 대신 양으로 희생물이 대체된다.
	『맹자』(孟子) 「양혜왕장구상」(梁惠王章句上)

(다)	화자는 무심하게 거미 새끼 하나를 문 밖으로 내쫓는다. 하지만 이내 곧 큰 거미가 안으로 들어오자 방금 내친 새끼 거미를 찾는 어미 거미일 것이라 여기며 감정이 동요된다. 이윽고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들어오자 화자는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식구 거미를 쉬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부드럽게 내보내 준다.
	백석, 「수라」(修羅)

6. 채점 기준

1) 문항별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1	이해력	지문과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40
	논증력	답안의 내용이 논리적(타당성)이고 일관성이 있는가?	40
	표현력	문장의 표현이 자연스럽고 적절한가?	10
	창의력	논리의 전개에 있어 발상의 전환(다양성)이나 창의성(통찰력)이 있는가?	10

2) 문항별 배점

구분	A	B	C	D	F
이해력	40	30	20	10	0
논증력	40	30	20	10	0
표현력	10	8	6	4	0
창의력	10	7	4	1	0

3) 채점 기준

- 이해력(40)

등급	채점 기준
	* 지문과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① 제시문 <가>에서 감정이입(empathy)과 연민(compassion)의 개념을 이해하고 서술하였는가? ② ㉠의 심리 상태를 감정이입으로 분석하여 서술하였는가? ③ ㉡의 심리 상태를 감정이입도 연민도 아닌 무심함으로 분석하여 서술하였는가? ④ ㉢의 심리 상태를 연민으로 분석하여 서술하였는가?
A	①, ②, ③, ④의 핵심 내용이 모두 정확하게 포함된 경우
B	①, ②, ③, ④ 중 셋이 정확하게 포함되고 하나는 미흡하게 서술된 경우
C	①, ②, ③, ④ 중 둘만 정확하게 포함되고 둘은 미흡하게 서술된 경우
D	①, ②, ③, ④ 모두 미흡하거나, 제시문의 직접 인용이 두드러진 경우
F	미작성, 또는 매우 부족하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답안일 경우

- 논증력(40)

등급	채점 기준
	* 답안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일관성이 있는가? 감정이입(empathy)과 연민(compassion)의 구분 준거 확립 A. 감정이입/연민의 사례가 아님 : 외부 대상으로 간주하고 대상과 분리된 태도, 즉 무심함을 유지 B. 감정이입의 차별적 속성 : 타인의 부정적 상황과 감정에 자신을 대입하나 상대방의 처지를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음. C. 연민의 차별적 속성 : 타인의 부정적 상황과 감정에 자신을 대입하여 자신을 상대방과 동일시. 연민의 세 가지 요건 (심각함, 부당함, 타인의 불행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모두 만족함.

등급	① <나>의 ㉠에 대한 판단이 준거 B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는가? ② <다>의 ㉡에 대한 판단이 준거 A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는가? ③ <다>의 ㉢에 대한 판단이 준거 C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는가? ④ <가>에 제시된 개념에 대한 분석과 ㉠, ㉡, ㉢의 심리 상태 분류가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연계되었는가?
A	①, ②, ③, ④가 모두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서술된 경우
B	①, ②, ③, ④ 가운데 하나의 일관성이나 완결성이 미흡한 경우
C	①, ②, ③, ④ 가운데 둘의 일관성이나 완결성이 미흡한 경우
D	전반적으로 부정확하고 논리적 서술이 부족하며 제시문의 직접 인용이 두드러진 경우
F	미작성 또는 매우 부족하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답안인 경우

- 표현력(10)

등급	채점 기준
	* 문장의 표현이 자연스럽고 적절한가? ① 정확한 맞춤법 사용 ② 문법적으로 적절한 문장 사용 ③ 문장들 사이의 적절한 연결 관계 표시 ④ 비속어, 금기어 없이 표준어 사용 <답안 분량에 따른 감점 기준> 525자 초과 → 2점 감점 / 475자 초과~525자 이하 → 감점 없음 / 300자 초과~475자 이하 → 2점 감점 / 300자 이하 → 0점 처리
A	①, ②, ③, ④의 기준을 모두 준수한 경우
B	①, ②, ③, ④ 가운데 하나에서 사소한 잘못이 있는 경우
C	①, ②, ③, ④ 가운데 2, 3개 잘못이 있는 경우
D	①, ②, ③, ④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F	미작성 또는 매우 부족하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답안인 경우

- 창의력(10)

등급	채점 기준
	* 논리의 전개에 있어 발상의 전환(다양성)이나 창의성(통찰력)이 있는가?
A	이해력과 논증력에 문제가 없으면서 자신의 목소리로 독창적으로 서술
B	이해력과 논증력이 다소 미흡하나 독창적으로 서술
C	독창적이지는 않지만 흥미로운 발상의 전환이 엿보임
D	창의력이 거의 보이지 않음
F	미작성, 또는 매우 부족하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답안

7. 예시 답안

【예시답안 1】

감정이입은 타인과 자신이 동일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인식 하에서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심리 상태이며, 연민은 타인의 처지와 감정에 대한 이해에 더 하여 그러한 상황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느끼는 심리 상태이다. 연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타인의 상황이 심각해야 하고, 둘째, 그 상황이 부당하거나 과도해야 하며, 셋째, 그 상황이 여타의 경우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은 소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양에 게까지 확장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감정이입은 일어나지만 연민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은 거미 새끼를 그저 쓸어버릴 수 있는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는 점에서 연민은 물론 감정이입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은 거미 가족이 서로 흠어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이 그 상황

유발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부당함을 느낄 뿐 아니라 식민 치하에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감정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민의 심리 상태가 드러난 것으로 이해된다. (525자)

【예시답안 2】

감정이입은 타자의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상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고 연민은 타자의 불행에 대한 공감을 거쳐 고통스런 감정에 이른 상태이다. 연민에는 타자의 고통에 대한 심각함, 타자가 겪는 고통의 부당함, 타자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 될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전제된다. ㉠에서 시적 화자는 거미 새끼를 차가운 바깥 세계로 쓸어버렸다. 이는 감정이입도 연민도 가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에서 제선왕(齊宣王)은 소에게 측은한 감정을 느껴 소 대신 양을 쓰도록 명령한다. 소가 처한 상황의 심각함과 부당함의 감정이 양에게까지 투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정이입은 일어났으나 연민에까지 이르지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의 시적 화자는 거미 새끼를 쓸어버린 자신의 행위가 거미 가족을 흩어지게 만들었음을 인식하고 서러워한다. 이는 거미의 고통이 심각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거미 가족이 흩어진 것이 부당하며 거미 가족의 이산이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심리를 나타낸 것이므로 연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507자)

【예시답안 3】

감정이입(empathy)은 타인과 나는 동일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인식 하에서 타인의 처지와 감정을 상상하는 것이며, 연민(compassion)은 적극적으로 타인의 상황과 정서에 몰입하는 것이다. 연민의 요건으로는 문제 상황의 심각성, 타자가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한 부당성, 타인의 불행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인식이 있다. ㉠은 거미를 외부 대상으로 간주하고 정서적 거리감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감정이입과 연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 사지로 향하는 소의 심정에 감정이입하여 소를 풀어주지만 대신 양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연민은 아니다. 소가 직면한 상황의 심각성과 소의 희생이 부당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불행이 닥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에는 거미 식구를 해체한 자신의 행위가 부당하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미 식구가 쉬이 재결합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타인과 나를 동일시하는 연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489자)

【덕성여자대학교 문항정보 2】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문항번호 2	
출제 범위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세계사] [한국사] [통합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예상 소요 시간	45분/전체 90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자신의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수준이 낮거나 미개하다고 판단하는 태도가 있다. 이런 태도는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집단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높이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하여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자기 문화만을 고집하고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거부한다면,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른 사회의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여기고 추종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도 있는데, 이런 태도는 다른 문화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 자기 문화 발전의 계기를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사회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그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잃게 하거나 고유문화의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한편, 어떤 사회의 특수한 자연환경, 역사적 전통,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있다. 이것은 각 사회의 문화가 특수한 상황과 필요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그 사회 구성원에게는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런 태도는 각

문화가 가진 고유성을 인정하며 그 의미와 배경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문화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문화가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화가 무조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화까지도 인정하려는 극단적인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나〉 백인의 책무를 다하라 / 야만적인 전쟁을 평화로 바꾸고 / 기아로 허기진 입들을 먹이기 위해 / 질병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 그리고 네가 너의 목적을 달성할 때쯤 / 너를 원하는 다른 미개인들을 위해 / 다른 원주민들과 이교들에게로 시선을 돌려라 / 그들의 광기를 끝장낸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다

－ 러디어드 키플링, 백인의 짐

〈다〉 옛날 연나라의 수도인 수릉에 한 젊은이가 살았다. 연나라는 작은 나라였다. 그 젊은이는 보잘 것 없는 작은 나라에 사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큰 나라인 조나라를 동경하였다. 젊은이는 조나라에 한번이라도 가서 그곳의 훌륭한 문물을 보아야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날 그는 드디어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수릉 사람들의 걸음걸이와 다른 것을 보고 자신의 걸음걸이를 무척 부끄러워했다. 젊은이는 열심히 한단 사람들의 걷는 법을 흉내 냈다. 그러나 한단의 걸음걸이를 완전히 배우기도 전에 여행경비는 다 떨어져 버렸다. 이제는 고향으로 가는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릉의 젊은이는 그만 옛날의 걸음걸이마저 잊어버리고 말았다. 걷는 법을 아예 다 잊은 그는 결국 기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 장자

〈라〉 사티는 남편이 죽고 나서 화장할 때 아내를 산 채로 함께 화장하는 힌두교의 옛 풍습으로 가장 오래된 사례는 기원 후 510년에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1829년에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점점 줄어들었지만, 1987년에도 18세의 한 여성이 사티로 인해 희생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사티가 힌두 사회의 고유문화이므로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시사인, 2014. 6. 24.

〈마〉 양반 유생들은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위정척사는 바른 것을 지키고(위정) 사악한 것을 물리치자(척사)는 뜻이다. 여기서 ‘바른 것’은 성리학적 사회 질서이고, ‘사악한 것’은 서양문물을 뜻한다.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는 유생들은 ‘서양 사람은 모두 금수다.’라고 생각하였다. 서구 열강이 동양을 야만으로 본 것과 비슷하다. 또한 서양에 개항한 일본도 윤리를 모르는 금수라고 여겼다. 그래서 이들은 서양의 침략과 천주교 등의 서양문물을 물리치고 유교 윤리를 지키자는 위정척사 운동을 벌였다. 특히 1880년대 초, 정부가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미국과 수교가 필요하다며 『조선책략』을 배포하자 위정척사 운동은 절정에 달하였다. 영남 지역 유생들이 이만손을 중심으로 집단 상소인 ‘만인소’를 올리자, 이에 호응하여 전국의 유생들이 『조선책략』과 정부의 개화 정책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문제 2】

〈가〉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 〈다〉, 〈라〉, 〈마〉에 드러난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을 비판하시오.(500자 내외) [100점]

3. 출제 의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문화를 이해하는 세 가지 태도인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 각 사례를 비판하는 능력을 파악하는데 있다.

- －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로서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 － 제시문 〈나〉의 백인종은 우월하고 원주민은 미개하다는 인종적 우월감 사례, 〈마〉의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는 유생들이 서양 사람을 금수라고 생각한 사례를 자문화 중심주의와 연계하여 파악하고 비판하고 있는가?
- － 제시문 〈다〉의 연나라 젊은이가 조나라의 걸음걸이를 흉내 내다 옛날의 걸음걸이마저 잊어버린 사례를 문화 상대주의와 연계하여 파악하고 비판하고 있는가?
- － 제시문 〈라〉의 힌두교의 풍습인 사티를 존중하자는 주장을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태도와 연계하여 파악하고 비판하고 있는가?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문항 및 제시문		관련 성취기준
제시문 <가>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문화
	영역/요소	“문화와 일상생활”의 “문화의 이해”
	성취기준	[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제시문 <나>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세계사
	영역/요소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 대전”의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성취기준	[12세사05-01]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이에 대항한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운동에 대해 조사한다.
제시문 <다>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문화
	영역/요소	“문화와 일상생활”의 “문화의 이해”
	성취기준	[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제시문 <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사회
	영역/요소	“문화와 다양성”의 “문화상대주의와 보편 윤리”
	성취기준	[10통사07-03]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
제시문 <마>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한국사
	영역/요소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의 “동아시아의 변화와 근대적 개혁의 추진”
	성취기준	[10한사02-02] 강화도 조약의 성격을 살펴보고, 개화 정책의 내역과 이를 둘러싼 여러 세력의 대응을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여 파악한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구정화 외 4명	천재교육	2017	100-1	제시문<가>	O
	세계사	이병인 외 7명	비상	2017	159	제시문<나>	X
	사회·문화	손영찬 외 4명	미래앤	2017	101	제시문<다>	X
	통합사회	구정화 외 9명	천재교육	2017	97	제시문<라>	O
	한국사	박중현 외 9명	해냄에듀	2019	104	제시문<마>	O
	한국사	신주백 외 7명	씨마스	2019	111	제시문<마>	O

5. 문항 해설

1) 제시문의 내용과 구성

제시문 <가>는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인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각 관점이 가지는 한계점을 비판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백인종은 우월하고 원주민과 이교도는 미개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자문화 중심주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연나라의 젊은이가 조나라를 동경하며 조나라의 걸음걸이를 흉내 내는 것을 문화 상대주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힌두교의 풍습인 사티를 존중해야한다는 주장을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태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는 유생들이 ‘서양 사람은 모두 금수다.’라고 생각한 것을 자문화 중심주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2) 문항 분석

【문제 2】

〈가〉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 〈다〉, 〈라〉, 〈마〉에 드러난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을 비판하시오.(500자 내외) [100점]

본 문항은 제시문 <가>에서 설명한 문화를 이해하는 세 가지 태도인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 <다>, <라>, <마>에서 각 관점에 연계된 사례를 선별한 후 각 사례를 비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나>의 백인종은 우월하고 타인종은 미개하다고 주장하는 제국주의 열강의 사례와 <마>의 위정척사운동의 사례는 자문화 중심주의 사례로서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여야 한다. 또한 <다>의 연나라 젊은이가 조나라 걸음걸이를 흉내 낸 것은 문화 상대주의의 사례로 다른 사회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그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할 우려가 있으며,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잃게 하거나 고유문화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비판하여야 한다. <라>의 힌두교 사티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사례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화까지 인정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하여야 한다.

6. 채점 기준

1) 공고 시 제시된 일반 기준

구분	내용
이해력	지문과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논증력	답안의 내용이 논리적(타당성)이고 일관성이 있는가?
표현력	문장의 표현이 자연스럽고 적절한가?

2) 문항별 배점

【문제 2】 (100점)

구분	A	B	C	D	F
이해력	40	35	30	20	0
논증력	40	30	20	10	0
표현력	20	18	16	14	0

3) 채점기준

【문제 2】(이해력 - 40점)

구분	판단기준
〈평가 요소〉 ▣ 문화를 이해하는 세 가지 태도인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평가의 초점이 있다. ▣ 위 세 가지 태도에 해당하는 제시문을 바르게 선별하여 논술하였는가에 평가 초점이 있다. ▣ 주요 기준은 아래의 5개 항목과 같다.	
①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판단하는 자문화 중심주의, 자문화를 낮게 평가하고 타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문화 상대주의, 특정 문화가 형성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각 문화가 가진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을 이해하고 구분하여 설명하였는가?	
② 자문화 중심주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내용을 제시하여 논술하였는가?	
③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내용을 제시하여 논술하였는가?	
④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내용을 제시하여 논술하였는가?	
⑤ 자문화 중심주의 관점에서 제시문 <마>의 내용을 제시하여 논술하였는가?	
A	①, ②, ③, ④, ⑤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B	①, ②, ③, ④, ⑤ 평가기준 중 4개만 충족한 경우
C	①, ②, ③, ④, ⑤ 평가기준 중 3개만 충족한 경우
D	①, ②, ③, ④, ⑤ 평가기준 중 2개만 충족한 경우
F	①, ②, ③, ④, ⑤ 평가기준 중 1개만 충족한 경우,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문제 2】(논증력 - 40점)

구분	판단기준
〈평가 요소〉 ▣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하는 사례의 선별근거(백인종 우월감과 서구를 금수로 여기는 인식)와 비판근거(타인종을 야만과 미개로 경시와 서양문화 교류 거부)를 적시하여 논증하고 있는가에 평가의 초점이 있다. ▣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하는 사례의 선별근거(조나라 숭상)와 비판근거(자기 문화 정체성 상실)를 적시하여 논증하고 있는가에 평가의 초점이 있다. ▣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사례의 선별근거(여성을 산 채로 매장하는 것까지도 고유문화로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와 비판근거(인간의 존엄성 훼손)를 적시하여 논증하고 있는가에 평가의 초점이 있다. ▣ 주요 기준은 아래의 4개 항목과 같다.	
① 제시문 <나>에서 백인들이 백인종의 문화를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타 인종의 문화를 미개하다고 믿는 사례를 자문화 중심주의의 폐해와 연계하여 논증하고 있는가?	
② 제시문 <다>에서 연나라의 젊은이가 조나라를 숭상한 나머지 자기 문화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예시를 문화 상대주의의 부정적 결과와 연계하여 논증하고 있는가?	
③ 제시문 <라>에서 산 채로 여성을 매장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사티까지도 고유문화로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태도와 연계하여 논증하고 있는가?	
④ 제시문 <마>에서 서구를 야만으로 여겨 경시하고 자문화를 고수하며 교류를 거부한 유생들의 사례를 자문화 중심주의의 폐해와 연계하여 논증하고 있는가?	
A	①, ②, ③, ④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B	①, ②, ③, ④ 평가기준 중 3개만 충족한 경우
C	①, ②, ③, ④ 평가기준 중 2개만 충족한 경우
D	①, ②, ③, ④ 평가기준 중 1개만 충족한 경우
F	①, ②, ③, ④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문제 2】(표현력 - 20점)

구분	판단기준
〈평가 요소〉 ▣ 문장 표현의 자연스러움, 적절성, 올바른 맞춤법, 접속사, 주어-서술어 호응 등이 정확한가를 평가하며, 주요 기준은 아래의 4개 항목과 같다.	
① 맞춤법은 정확한가? ②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③ 주어-서술어 호응 등 문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가? ④ 비속어 등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감점기준〉 525자 초과 → 한 등급 낮춤 475자 초과 ~ 525자 이하 → 감점 없음 300자 초과 ~ 475자 이하 → 한 등급 낮춤 300자 이하 → 표현력 0점 처리	
A	①, ②, ③, ④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B	①, ②, ③, ④ 평가기준 중 3개만 충족한 경우
C	①, ②, ③, ④ 평가기준 중 2개만 충족한 경우
D	①, ②, ③, ④ 평가기준 중 1개만 충족한 경우
F	①, ②, ③, ④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7. 예시 답안

【문제 2】

〈가〉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 〈다〉, 〈라〉, 〈마〉에 드러난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을 비판하시오.(500자 내외) [100점]

〈가〉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로 자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판단하는 자문화 중심주의, 자문화를 낮게 평가하고 타문화를 숭상하는 문화 상대주의, 특정 문화가 형성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각 문화가 가진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는 문화 상대주의를 설명한다. 〈나〉에서 백인들은 타 인종에 비해 우월하다고 여기며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마〉에서 유생들은 서양 문화를 야만으로 인식하며 위정척사 운동을 벌였다. 〈나〉와 〈마〉는 자문화 중심주의의 폐해를 드러내는 예시로 타문화를 경시하거나 자기 문화만을 고집해 교류를 거부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 〈다〉에서 연나라의 젊은이는 조나라 문화를 동경한 나머지 자신의 걸음걸이를 잊어버렸다. 이는 문화 상대주의의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는 예시로 타문화를 맹목적으로 숭배해 문화적 정체성을 잃게 된다. 〈라〉에서 일부 사람들은 여성을 희생하는 사티까지도 고유문화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문화 상대주의의 극단적인 태도로 인권을 훼손하는 문제를 낳는다. (506자)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해설 및 채점기준(자연계열)

[덕성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문항번호1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직선의 방정식, 미분, 접선의 방정식, 정적분, 함수의 최솟값
예상 소요 시간	총 90분 중 45분 소요 예상	

2. 문항 및 제시문

【문 1】

〈그림 1〉

실수 a, b 에 대하여 $a < b$ 일 때,
〈그림 1〉과 같이 곡선 $y = x^2 - 1$ 위의 두 점 $A(a, a^2 - 1), B(b, b^2 - 1)$ 을 잇는 직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a, b)$ 라고 하자.
 $a = b$ 일 때는 $S(a, b) = 0$ 으로 정의한다.

【문제 1-1】
정적분을 이용하여 $S(a, b) = \frac{(b-a)^3}{6}$ 임을 보이시오. [20점]

〈그림 2〉

【문제 1-2】
〈그림 2〉와 같이 곡선 $y = x^2 - 1$ 위의 세 점 $A(a, a^2 - 1), B(b, b^2 - 1), C(c, c^2 - 1)$ (단, $a < c < b$)에 대하여 $S(a, c) = S(c, b)$ 를 만족시키는 c 를 a, b 로 나타내고, 곡선 위의 점 C 에서의 접선이 직선 AB 와 서로 평행함을 보이시오. [35점]

【문제 1-3】
닫힌구간 $[-1, 2]$ 에서 함수 $f(x) = 2S(-1, x) + \sqrt[3]{6S(x, 2)}$ 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45점]

3. 출제 의도

-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 다항함수를 미분하여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 서로 다른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함을 아는지 알아본다.
- 다항함수의 미분을 이용하여 함수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문항 및 제시문		관련 성취기준
1	1-1	[수학]-(2)기하-(나)직선의 방정식 [10수학02-03]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수학II]-(3)적분-(다)정적분의 활용 [12수학II 03-05]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1-2	[수학]-(2)기하-(나)직선의 방정식 [10수학02-04] 두 직선의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해한다. [수학II]-(2)미분-(다)도함수의 활용 [12수학II 02-06]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1-3	[수학II]-(2)미분-(다)도함수의 활용 [12수학II 02-09]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	-----	--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고성은 외 6인	좋은책 신사고	2020	120-121, 124		
	수학	이준열 외 9인	천재교육	2020	124-125, 128		
	수학II	고성은 외 6인	좋은책 신사고	2021	88-90, 133-139		
	수학II	류희찬 외 10인	천재교과서	2020	88-89, 131-139		

5. 문항 해설

【문제 1-1】

-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하여 구한다.

【문제 1-2】

- 주어진 두 도형의 넓이를 같게 하는 점을 구한다.
- 다항함수를 미분하여 주어진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 서로 다른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음을 보여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함을 보인다.

【문제 1-3】

- [문제 1-1]을 이용하여 함수 $f(x)$ 를 x 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타낸다.
- 다항함수의 미분을 이용하여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구한다.
-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의 최솟값을 구한다.

6. 채점 기준

【문제 1-1】

-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경우 : +6점
- $S(a, b)$ 를 정적분으로 나타낸 경우 : +6점
- 정적분을 계산하여 $S(a, b) = \frac{(b-a)^3}{6}$ 을 보인 경우 : +8점

【문제 1-2】

- $S(a, c) = \frac{(c-a)^3}{6}$, $S(c, b) = \frac{(b-c)^3}{6}$ 임을 안 경우 : 8점
- $c = \frac{a+b}{2}$ 임을 보인 경우 : +12점
- 미분하여 $g'(x) = 2x$ 를 구한 경우 : +5점
- 접선의 기울기 $g'(c) = a + b$ 를 구한 경우 : +5점
- 접선의 기울기와 직선의 기울기가 같음을 보여서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함을 보인 경우 : +5점

【문제 1-3】

- $f(x) = \frac{(x+1)^3}{3} + (2-x)$ 를 구한 경우 : +13점
- 함수 $f(x)$ 를 미분하여 $f'(x) = (x+1)^2 - 1$ 을 계산한 경우 : +10점
- $f'(x) = 0$ 인 x 를 구한 경우 : +7점
- 함수 $f(x)$ 가 $x = 0$ 에서 최솟값을 가짐을 보인 경우 : +10점
- 최솟값 $f(0) = \frac{7}{3}$ 을 구한 경우 : +5점

7. 예시 답안

【문제 1-1】

두 점 $(a, a^2 - 1)$ 과 $(b, b^2 - 1)$ 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은 $y = (a + b)x - ab - 1$ 이다.

$$\begin{aligned} S(a, b) &= \int_a^b \{(a + b)x - ab - 1 - (x^2 - 1)\} dx \\ &= \int_a^b \{-x^2 + (a + b)x - ab\} dx \\ &= \frac{(b-a)^3}{6} \text{ 이다.} \end{aligned}$$

【문제 1-2】

[문제1-1]의 결과에 의해

$$\begin{aligned} S(a, c) &= \frac{(c-a)^3}{6}, \quad S(c, b) = \frac{(b-c)^3}{6} \text{ 이다.} \\ \text{이제, } (c-a)^3 &= (b-c)^3, \quad a < c < b \text{인 상수 } c \text{를 구하면 } c-a = b-c \\ \text{즉, } c &= \frac{a+b}{2} \text{ 이다.} \end{aligned}$$

$$g(x) = x^2 - 1 \text{이라고 하면 } g'(x) = 2x \text{이고}$$

$$g'(c) = 2\left(\frac{a+b}{2}\right) = a + b \text{ 이다.}$$

따라서 곡선 위의 점 C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a + b$ 이다.
두 점 A와 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도 $a + b$ 이므로, 이 직선의 기울기와 점 C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따라서 점 C에서의 접선과 직선 AB는 서로 평행하다.

【문제 1-3】

닫힌구간 에서 $[-1, 2]$

$$S(-1, x) = \frac{(x+1)^3}{6}, \quad S(x, 2) = \frac{(2-x)^3}{6} \text{ 이다.}$$

$$\begin{aligned} \text{따라서 } f(x) &= 2S(-1, x) + \sqrt[3]{6S(x, 2)} \\ &= \frac{1}{3}(x+1)^3 + (2-x) \text{ 이고} \end{aligned}$$

$f'(x) = (x + 1)^2 - 1 = x(x + 2)$
 $f'(x) = 0 \Leftrightarrow x = -2 \text{ 또는 } x = 0$

닫힌구간 $[-1, 2]$ 에서 함수 $f(x)$ 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1	$\cdots$	0	$\cdots$	2
$f'(x)$		-	0	+	
$f(x)$	3	$\searrow$	$\frac{7}{3}$	$\nearrow$	$\frac{8}{3}$

따라서 닫힌구간 $[-1, 2]$ 에서 함수 $f(x)$ 는 $x = 0$ 에서 최솟값을 갖고, 최솟값은

$f(0) = \frac{7}{3}$ 이다.

[덕성여자대학교 문항정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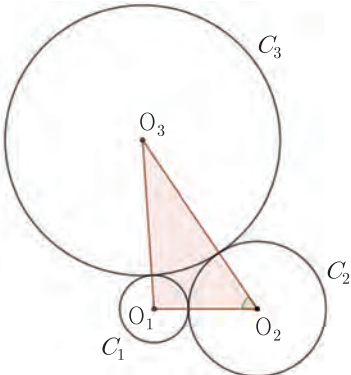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문항번호2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삼각함수, 로그, 등비수열, 수열의 합
예상 소요 시간	총 90분 중 45분 예상	

2. 문항 및 제시문

【문 2】

〈그림 1〉

〈그림 1〉과 같이 각각 점 O_1, O_2, O_3 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 2, 4인 세 원 C_1, C_2, C_3 이 서로 외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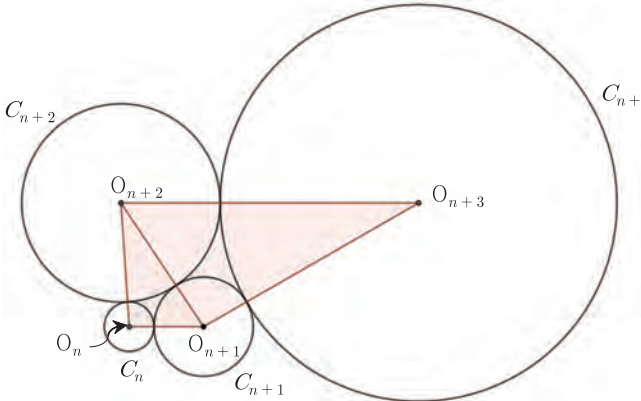
〈그림 2〉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점 O_n 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_n 인 원 C_n 이 다음 세 조건 (가), (나), (다)를 만족시킨다.

(가) 〈그림 2〉와 같이 세 원 C_n, C_{n+1}, C_{n+2} 는 서로 외접한다.

(나) 수열 $\{r_n\}$ 은 첫째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다.

(다) 〈그림 2〉와 같이 삼각형 $O_nO_{n+1}O_{n+2}$ 와 삼각형 $O_{n+1}O_{n+2}O_{n+3}$ 은 선분 O_nO_{n+3} 을 공유한다.



【문제 2-1】

〈그림 1〉의 삼각형 $O_1O_2O_3$ 에서 $\cos(\angle O_1O_2O_3)$ 의 값을 구하시오. [20점]

【문제 2-2】

원 C_n 의 넓이를 S_n 이라고 하자. $\sum_{n=1}^N \log_2 \frac{S_n}{\pi} > 100$ 을 만족하는 자연수 N 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40점]

【문제 2-3】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직선 O_nO_{n+1} 과 직선 $O_{n+2}O_{n+3}$ 이 서로 평행함을 보이시오. [40점]

3. 출제 의도

【문제 2-1】 주어진 원들의 외접 조건으로부터 중심들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로부터 코사인법칙을 사용하여 삼각형의 내각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 2-2】 주어진 첫째항과 공비로부터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어진 반지름을 가진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로그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들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 2-3】 주어진 조건들로부터 외접하는 원들의 중심들로 이루어진 삼각형들의 변의 길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대응하는 엇각이 같다는 사실로부터 주어진 직선들이 서로 평행함을 보일 수 있는지 알아본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문항 및 제시문		관련 성취기준
2	2-1	[수학Ⅰ]-(2) 삼각함수-(가) 삼각함수 [12수학Ⅰ 02-03]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2	[수학Ⅰ]-(3) 수열-(가)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12수학Ⅰ 03-03]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수학Ⅰ]-(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지수와 로그 [12수학Ⅰ 01-04] 로그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수학Ⅰ]-(3) 수열-(나) 수열의 합 [12수학Ⅰ 03-04] Σ 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3	[수학Ⅰ]-(2) 삼각함수-(가) 삼각함수 [12수학Ⅰ 02-03]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수학Ⅰ]-(3) 수열-(가)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12수학Ⅰ 03-03]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Ⅰ	고성은 외 6인	좋은책 신사고	2020	26, 95, 124, 137		
	수학Ⅰ	김원경 외 14인	비상교육	2020	23, 100, 128, 142		

5. 문항 해설

【문제 2-1】

제시문의 조건으로부터 서로 외접하는 세 원 C_1 , C_2 , C_3 의 각각의 중심 O_1 , O_2 , O_3 이 이루는 삼각형 $O_1 O_2 O_3$ 의 변의 길이들을 구한다.
이 결과와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각 $O_1 O_2 O_3$ 의 코사인 값을 구한다.

【문제 2-2】

제시문의 조건 (나)로부터 원 C_n 의 반지름 r_n 의 일반항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C_n 의 넓이 S_n 의 일반항을 구한다.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여 수열 $\log_2 \frac{S_n}{\pi}$ 을 구하고, 수열의 합 $\sum_{n=1}^N \log_2 \frac{S_n}{\pi}$ 을 N 으로 표현한다.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N 의 최솟값을 구한다.

【문제 2-3】

제시문의 귀납적 조건 (가), (나)로부터 삼각형 $O_n O_{n+1} O_{n+2}$ 와 삼각형 $O_{n+1} O_{n+2} O_{n+3}$ 의 각 변의 길이를 알아낸다.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각 $O_n O_{n+1} O_{n+2}$ 와 각 $O_{n+1} O_{n+2} O_{n+3}$ 의 코사인 값이 같음을 보인다. 두 엇각 $O_n O_{n+1} O_{n+2}$ 와 $O_{n+1} O_{n+2} O_{n+3}$ 의 크기가 같음을 보이고, 이를 이용하여 두 직선 $O_n O_{n+1}$ 과 $O_{n+2} O_{n+3}$ 이 서로 평행함을 보인다.

6. 채점 기준

【문제 2-1】

- (1)과 같이 세 선분 $O_1 O_2$, $O_2 O_3$, $O_1 O_3$ 의 길이를 구한 경우 : +10점
 - E(0점) : 문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 B(5점) : 시도는 하였지만 (1)과 같은 완벽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
 - A(10점) : 외접조건을 이용하여 (1)과 같은 답을 얻었다.
-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2)와 같이 각 $O_1 O_2 O_3$ 의 코사인 값을 구한 경우 : +10점
 - E(0점) : 문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 B(5점) : 코사인법칙을 아는 정도이거나, 혹은 코사인법칙을 이용하려 했으나 완벽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
 - A(10점) :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2)과 같은 답을 얻었다.

【문제 2-2】

- 제시문의 조건 (나)로부터 수열 $\{r_n\}$ 의 일반항을 알아내고, (3)과 같이 원 C_n 의 넓이 S_n 을 구한 경우 : +10점
 - E(0점) : 문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 B(5점) : $\{r_n\}$ 의 일반항만 알아내었다.
 - A(10점) : S_n 의 일반항을 알아내었다.
-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여 (4)와 같이 $\log_2 \frac{S_n}{\pi}$ 을 구한 경우 : +10점
 - E(0점) : 문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 B(5점) : 로그를 이용하려 하였지만 (4)와 같은 답을 얻지 못하였다.
 - A(10점) : 로그를 이용하여 (4)의 답을 얻었다.
- (5)와 같이 $\sum_{n=1}^N \log_2 \frac{S_n}{\pi}$ 을 N 으로 표현한 경우 : +15점
 - E(0점) : 문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 C(5점) : $\sum$ 의 의미를 알지만, 이를 이용한 계산을 할 수 없다.
 - B(10점) : $\sum$ 의 의미를 알고 계산을 하였지만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
 - A(15점) : (5)와 같이 정확한 답을 얻었다.

- (5)를 이용하여 N 의 최솟값을 알아낸 경우 : +5점
 - E(0점) : 문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 A(5점) : 완벽한 답을 하였다.

【문제 2-3】

예시답안 1)

- (6)과 같이 삼각형 $O_n O_{n+1} O_{n+2}$ 와 삼각형 $O_{n+1} O_{n+2} O_{n+3}$ 의 각 변의 길이를 알아낸 경우 : +10점

- E(0점) : 문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 B(5점) : 시도는 하였지만 완벽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 혹은 일반적인 n 에 대해서가 아니라, n 이 1 혹은 2인 일부 경우들에 대한 답만을 얻었다.
- A(10점) : 외접조건을 이용하여 (6) 혹은 (9)와 같은 답을 얻었다.

-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7)과 같이 각 $O_n O_{n+1} O_{n+2}$ 와 각 $O_{n+1} O_{n+2} O_{n+3}$ 의 코사인 값이 같음을 보인 경우 : +15점
 - E(0점) : 문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 C(5점) : 코사인법칙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시도만 하였다. 혹은 일반적인 n 에 대해서가 아니라, n 이 1 혹은 2인 일부 경우들에 대한 답만을 얻었다.
 - B(10점) : 코사인법칙을 알고 일부 내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였다.
 - A(15점) : 대응하는 내각들의 코사인 값이 같음을 보였다.
- (8)과 같이 각 $O_n O_{n+1} O_{n+2}$ 와 각 $O_{n+1} O_{n+2} O_{n+3}$ 의 크기가 같음을 보인 경우 : +5점
 - E(0점) : 문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혹은 일반적인 n 에 대해서가 아니라, n 이 1 혹은 2인 일부 경우들에 대한 답만을 얻었다.
 - A(5점) : 0° 와 180° 사이의 각들, 즉 삼각형의 내각들은 코사인 값이 같을 경우 각의 크기도 같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대응하는 각들의 크기가 같음을 보였다.
- 두 엿각 $O_n O_{n+1} O_{n+2}$ 와 $O_{n+1} O_{n+2} O_{n+3}$ 이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두 직선 $O_n O_{n+1}$ 과 $O_{n+2} O_{n+3}$ 이 서로 평행함을 보인 경우 : +10점
 - E(0점) : 문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 B(5점) : 엿각 등을 이용하여 두 직선이 평행함을 보이려 하였으나, 요구하는 답을 하지 못하였다. 혹은 일반적인 n 에 대해서가 아니라, n 이 1 혹은 2인 일부 경우들에 대한 답만을 얻었다.
 - A(10점) : 엿각들의 크기가 같으면 대응하는 두 직선이 평행임을 이용하여,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하였다.

예시답안 2)

- (9)와 같이 삼각형 $O_n O_{n+1} O_{n+2}$ 와 삼각형 $O_{n+1} O_{n+2} O_{n+3}$ 의 각 변의 길이를 알아낸 경우 : +10점
 - E(0점) : 문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 B(5점) : 시도는 하였지만 완벽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 혹은 일반적인 n 에 대해서가 아니라, n 이 1 혹은 2인 일부 경우들에 대한 답만을 얻었다.
 - A(10점) : 외접조건을 이용하여 (6) 혹은 (9)와 같은 답을 얻었다.

- (10)등을 이용하여 삼각형 $O_n O_{n+1} O_{n+2}$ 와 삼각형 $O_{n+1} O_{n+2} O_{n+3}$ 이 서로 닮은 도형임을 보인 경우 : +15점
 - E(0점) : 문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 C(5점) : 닮은 도형의 개념을 알지만, 문제의 상황에 정확히 적용하지 못하였다.
 - B(10점) : 일반적인 n 에 대해서가 아니라, n 이 1 혹은 2인 일부 경우들에 대한 답만을 얻었다.
 - A(15점) : 대응하는 삼각형들이 서로 닮은 도형임을 보였다.

- (11)과 같이 삼각형 $O_{n+1} O_{n+2} O_{n+3}$ 의 내각들과 삼각형 $O_n O_{n+1} O_{n+2}$ 의 내각들의 대응관계를 보인 경우 : +5점
 - E(0점) : 문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혹은 일반적인 n 에 대해서가 아니라, n 이 1 혹은 2인 일부 경우들에 대한 답만을 얻었다.
 - A(5점) : 같은 크기를 가지는 내각들의 구체적 대응관계를 알아내었다.

- (12)등을 보임으로써 두 직선 $O_n O_{n+1}$ 과 $O_{n+2} O_{n+3}$ 이 서로 평행함을 보인 경우 : +10점
 - E(0점) : 문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 B(5점) : 엿각 등을 이용하여 두 직선이 평행함을 보이려 하였으나, 요구하는 답을 하지 못하였다. 혹은 일반적인 n 에 대해서가 아니라, n 이 1 혹은 2인 일부 경우들에 대한 답만을 얻었다.
 - A(10점) : 엿각들의 크기가 같으면 대응하는 두 직선이 평행임을 이용하여,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하였다.

예시답안 3)

- (6) 혹은 (9)와 같이 삼각형 $O_n O_{n+1} O_{n+2}$ 와 삼각형 $O_{n+1} O_{n+2} O_{n+3}$ 의 각 변의 길이를 알아낸 경우 : +10점
 - E(0점) : 문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 B(5점) : 시도는 하였지만 완벽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 혹은 일반적인 n 에 대해서가 아니라, n 이 1 혹은 2인 일부 경우들에 대한 답만을 얻었다.
 - A(10점) : 외접조건을 이용하여 (6) 혹은 (9)와 같은 답을 얻었다.

- (13)등과 같이 점 O_{n+2} 의 좌표가 만족하는 조건을 쓴 경우 : +5점
 - E(0점) : 시도를 하였지만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 혹은 일반적인 n 에 대해서가 아니라, n 이 1 혹은 2인 일부 경우들에 대한 답만을 얻었다.
 - A(5점) : 완벽한 답을 하였다.

- (14)등과 같이 점 O_{n+2} 의 좌표를 구한 경우 : +10점
 - E(0점) : 문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 B(5점) : 점 O_{n+2} 의 좌표가 만족하는 조건을 이용하여 좌표를 계산하였으나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 혹은 일반적인 n 에 대해서가 아니라, n 이 1 혹은 2인 일부 경우들에 대한 답만을 얻었다.
 - A(10점) : 점 O_{n+2} 의 좌표가 만족하는 조건을 이용하여 정확한 답을 얻었다.

- (15)등과 같이 점 O_{n+3} 의 좌표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두 직선 $O_n O_{n+1}$ 과 $O_{n+2} O_{n+3}$ 이 서로 평행함을 보인 경우 : +15점
 - E(0점) : 문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 C(5점) : 점 O_{n+3} 의 좌표를 구하려 하였으나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 혹은 일반적인 n 에 대해서가 아니라, n 이 1 혹은 2인 일부 경우들에 대한 답만을 얻었다.
 - B(10점) : 점 O_{n+3} 의 y 좌표를 정확하게 구하였다.
 - A(15점) : 점 O_{n+2} 와 O_{n+3} 의 좌표가 같음을 이용하여 두 직선이 평행함을 보였다.

7. 예시 답안

【문제 2-1】

$r_1 = 1$, $r_2 = 2$, $r_3 = 4$ 이고 세 원 C_1 , C_2 , C_3 가 제시문 〈그림 1〉과 같이 서로 외접하므로

$$\left. \begin{aligned} \overline{O_1 O_2} &= r_1 + r_2 = 1 + 2 = 3, \\ \overline{O_2 O_3} &= r_2 + r_3 = 2 + 4 = 6, \\ \overline{O_1 O_3} &= r_1 + r_3 = 1 + 4 = 5. \end{aligned} \right\} \quad \text{[1]}$$

삼각형 $O_1 O_2 O_3$ 에 코사인법칙을 적용하면

$$\cos(\angle O_1 O_2 O_3) = \frac{\overline{O_1 O_2}^2 + \overline{O_2 O_3}^2 - \overline{O_1 O_3}^2}{2 \cdot \overline{O_1 O_2} \cdot \overline{O_2 O_3}} = \frac{3^2 + 6^2 - 5^2}{2 \cdot 3 \cdot 6} = \frac{20}{2 \cdot 3 \cdot 6} = \frac{5}{9}. \quad \text{[2]}$$

【문제 2-2】

조건 (나)에 의하여 수열 $\{r_n\}$ 이 첫째항 1, 공비 2인 등비수열이므로

$$r_n = 1 \cdot 2^{n-1} = 2^{n-1}$$

이다. 따라서 원 C_n 의 넓이 S_n 은

$$S_n = \pi(2^{n-1})^2 = 2^{2n-2}\pi \quad (3)$$

이고, 로그의 정의에 의하여

$$\log_2 \frac{S_n}{\pi} = \log_2 2^{2n-2} = 2n-2. \quad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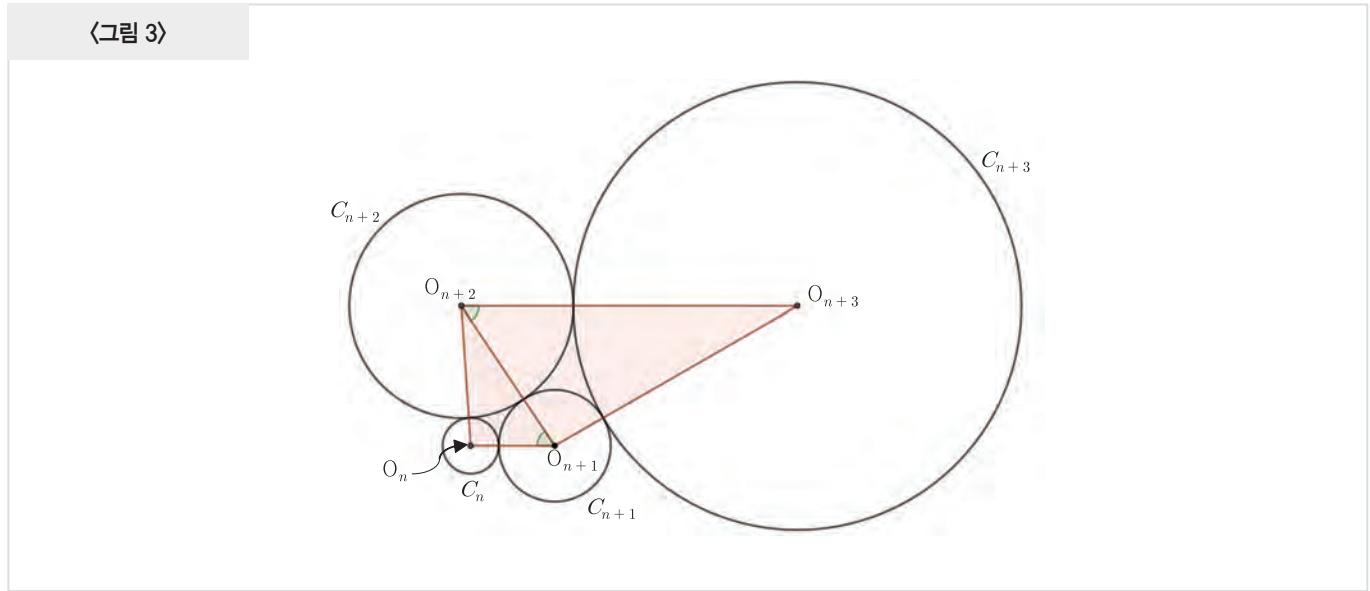
(5)에 의하여

$$\sum_{n=1}^N \log_2 \frac{S_n}{\pi} = \sum_{n=1}^N (2n-2) = 2 \sum_{n=1}^N n - \sum_{n=1}^N 2 = 2 \cdot \frac{1}{2} N(N+1) - 2N = N(N-1). \quad (5)$$

$N(N-1)$ 이 자연수 N 에 대한 증가함수이고 $10(10-1)=90 < 100, 11(11-1)=110 > 100$ 이므로, 구하는 N 의 최솟값은 11이다.

【문제 2-3】

예시답안 1)



제시문의 조건 (가), (나)에 의하여

$$\begin{aligned} \overline{O_n O_{n+1}} &= r_n + r_{n+1} = 2^{n-1} + 2^n, \\ \overline{O_n O_{n+2}} &= r_n + r_{n+2} = 2^{n-1} + 2^{n+1}, \\ \overline{O_{n+1} O_{n+2}} &= r_{n+1} + r_{n+2} = 2^n + 2^{n+1}, \\ \overline{O_{n+1} O_{n+3}} &= r_{n+1} + r_{n+3} = 2^n + 2^{n+2}, \\ \overline{O_{n+2} O_{n+3}} &= r_{n+2} + r_{n+3} = 2^{n+1} + 2^{n+2} \end{aligned} \quad (6)$$

이므로, 코사인법칙을 이용하면

$$\begin{aligned} \cos(\angle O_n O_{n+1} O_{n+2}) &= \frac{\overline{O_n O_{n+1}}^2 + \overline{O_{n+1} O_{n+2}}^2 - \overline{O_n O_{n+2}}^2}{2 \cdot \overline{O_n O_{n+1}} \cdot \overline{O_{n+1} O_{n+2}}} \\ &= \frac{(2^{n-1} + 2^n)^2 + (2^n + 2^{n+1})^2 - (2^{n-1} + 2^{n+1})^2}{2(2^{n-1} + 2^n)(2^n + 2^{n+1})} \\ &= \frac{(3^2 + 6^2 - 5^2)(2^{n-1})^2}{2 \cdot 3 \cdot 6 \cdot (2^{n-1})^2} = \frac{3^2 + 6^2 - 5^2}{2 \cdot 3 \cdot 6}, \quad \left(= \frac{5}{9} \right) \end{aligned}$$

$$\begin{aligned} \cos(\angle O_{n+1} O_{n+2} O_{n+3}) &= \frac{\overline{O_{n+1} O_{n+2}}^2 + \overline{O_{n+2} O_{n+3}}^2 - \overline{O_{n+1} O_{n+3}}^2}{2 \cdot \overline{O_{n+1} O_{n+2}} \cdot \overline{O_{n+2} O_{n+3}}} \\ &= \frac{(2^n + 2^{n+1})^2 + (2^{n+1} + 2^{n+2})^2 - (2^n + 2^{n+2})^2}{2(2^n + 2^{n+1})(2^{n+1} + 2^{n+2})} \\ &= \frac{(3^2 + 6^2 - 5^2)(2^n)^2}{2 \cdot 3 \cdot 6 \cdot (2^n)^2} = \frac{3^2 + 6^2 - 5^2}{2 \cdot 3 \cdot 6}. \quad \left(= \frac{5}{9} \right) \end{aligned}$$

따라서

$$\cos(\angle O_n O_{n+1} O_{n+2}) = \cos(\angle O_{n+1} O_{n+2} O_{n+3}) \quad (7)$$

을 얻는다. 각 $O_n O_{n+1} O_{n+2}$ 와 각 $O_{n+1} O_{n+2} O_{n+3}$ 이 삼각형의 내각들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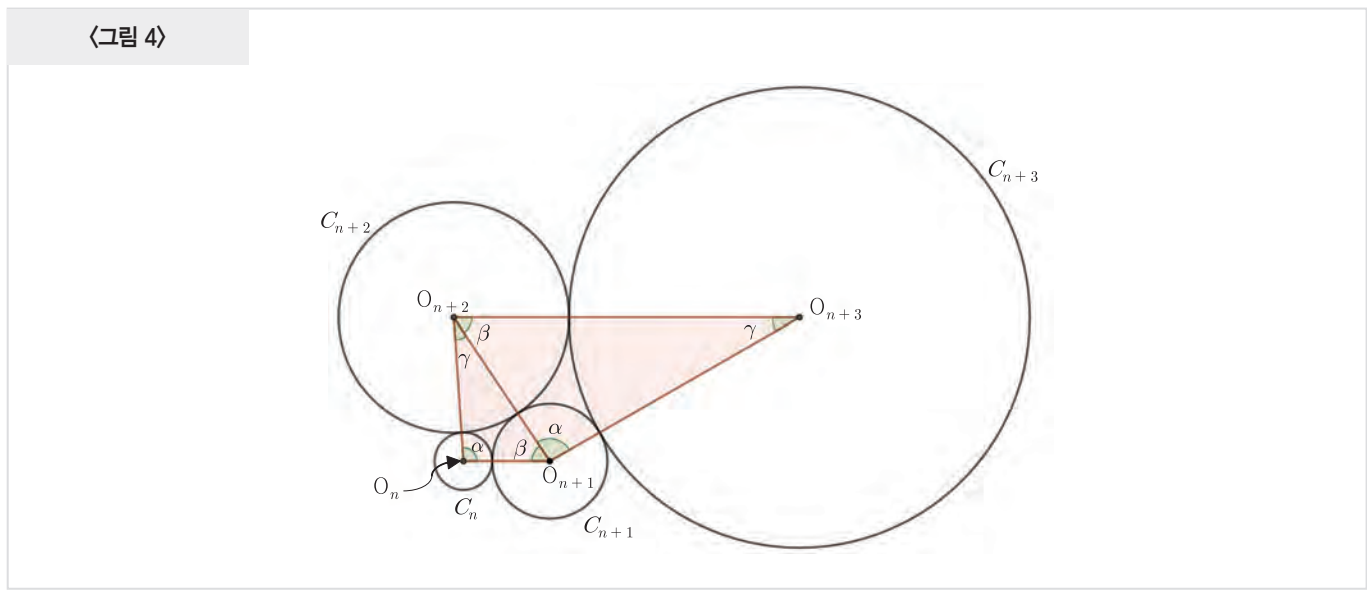
$$0 < \angle O_n O_{n+1} O_{n+2} < \pi, \quad 0 < \angle O_{n+1} O_{n+2} O_{n+3} < \pi$$

이고, 따라서 (7)에 의하여

$$\angle O_n O_{n+1} O_{n+2} = \angle O_{n+1} O_{n+2} O_{n+3}. \quad (8)$$

〈그림 3〉에서와 같이 두 엿각 $O_n O_{n+1} O_{n+2}$, $O_{n+1} O_{n+2} O_{n+3}$ 의 크기가 같으므로, 직선 $O_n O_{n+1}$ 과 직선 $O_{n+2} O_{n+3}$ 은 서로 평행하다.

예시답안 2)



$\angle O_{n+1} O_n O_{n+2} = \alpha$, $\angle O_n O_{n+1} O_{n+2} = \beta$, $\angle O_n O_{n+2} O_{n+1} = \gamma$ 라고 하자. 제시문의 조건 (가), (나)에 의하여

$$\begin{aligned} \overline{O_n O_{n+1}} &= r_n + r_{n+1} = 2^{n-1} + 2^n = 3 \cdot 2^{n-1}, \\ \overline{O_n O_{n+2}} &= r_n + r_{n+2} = 2^{n-1} + 2^{n+1} = 5 \cdot 2^{n-1}, \\ \overline{O_{n+1} O_{n+2}} &= r_{n+1} + r_{n+2} = 2^n + 2^{n+1} = 6 \cdot 2^{n-1}, \\ \overline{O_{n+1} O_{n+3}} &= r_{n+1} + r_{n+3} = 2^n + 2^{n+2} = 10 \cdot 2^{n-1}, \\ \overline{O_{n+2} O_{n+3}} &= r_{n+2} + r_{n+3} = 2^{n+1} + 2^{n+2} = 12 \cdot 2^{n-1} \end{aligned} \quad (9)$$

이므로,

$$\begin{aligned} \overline{O_n O_{n+1}} : \overline{O_n O_{n+2}} : \overline{O_{n+1} O_{n+2}} &= 3 : 5 : 6 \\ &= 6 : 10 : 12 \\ &= \overline{O_{n+1} O_{n+2}} : \overline{O_{n+1} O_{n+3}} : \overline{O_{n+2} O_{n+3}} \end{aligned}$$

[10]

이고, 따라서 삼각형 $O_n O_{n+1} O_{n+2}$ 와 삼각형 $O_{n+1} O_{n+2} O_{n+3}$ 은 서로 닮은 도형이다. <그림 4>에서와 같이

$$\angle O_{n+2} O_{n+1} O_{n+3} = \alpha, \quad \angle O_{n+1} O_{n+2} O_{n+3} = \beta, \quad \angle O_{n+1} O_{n+3} O_{n+2} = \gamma$$

[11]

이고, 특히

$$\angle O_n O_{n+1} O_{n+2} = \beta = \angle O_{n+1} O_{n+2} O_{n+3}$$

[12]

이므로 두 엿각 $O_n O_{n+1} O_{n+2}$, $O_{n+1} O_{n+2} O_{n+3}$ 의 크기가 같다. 따라서 직선 $O_n O_{n+1}$ 과 직선 $O_{n+2} O_{n+3}$ 은 서로 평행하다.

예시답안 3)

제시문의 조건 (나)를 이용하여 (6) 혹은 (9)를 보인다. (9)를 이용하여 점 O_n 의 좌표가 $(0, 0)$, 점 O_{n+1} 의 좌표가 $(3 \cdot 2^{n-1}, 0)$ 이 되도록 좌표평면을 잡는다. 점 O_{n+2} 의 좌표를 (a, b) 로 놓으면, (9)와 조건 (가)에 의하여, 일반성을 잃지 않고

$$\begin{aligned} (6 \cdot 2^{n-1})^2 &= \overline{O_{n+2} O_{n+1}}^2 = (a - 3 \cdot 2^{n-1})^2 + (b - 0)^2, \\ (5 \cdot 2^{n-1})^2 &= \overline{O_{n+2} O_n}^2 = (a - 0)^2 + (b - 0)^2 \end{aligned}$$

[13]

이 성립한다. (13)의 두 식의 차로부터

$$(6 \cdot 2^{n-1})^2 - (5 \cdot 2^{n-1})^2 = -6 \cdot 2^{n-1} a + (3 \cdot 2^{n-1})^2,$$

즉

$$\begin{aligned} a &= -\frac{1}{6 \cdot 2^{n-1}} \{ (6 \cdot 2^{n-1})^2 - (5 \cdot 2^{n-1})^2 - (3 \cdot 2^{n-1})^2 \} \\ &= -\frac{2^{n-1}}{6} (6^2 - 5^2 - 3^2) = -\frac{1}{3} \cdot 2^{n-1} \end{aligned}$$

을 얻고, 다시 (13)의 두 번째 식으로부터

$$\begin{aligned} b &= \sqrt{(5 \cdot 2^{n-1})^2 - \left(-\frac{1}{3} \cdot 2^{n-1}\right)^2} = \frac{2^{n-1}}{3} \sqrt{15^2 - 1^2} = \frac{2^{n-1}}{3} \sqrt{224} \\ &= \frac{4\sqrt{14}}{3} \cdot 2^{n-1} \end{aligned}$$

을 얻는다. 따라서 O_{n+2} 의 좌표는

$$\left(-\frac{1}{3} \cdot 2^{n-1}, \frac{4\sqrt{14}}{3} \cdot 2^{n-1}\right).$$

[14]

좌표가

$$\begin{aligned} (a + \overline{O_{n+2} O_{n+3}}, b) &= \left(-\frac{1}{3} \cdot 2^{n-1} + 12 \cdot 2^{n-1}, \frac{4\sqrt{14}}{3} \cdot 2^{n-1}\right) \\ &= \left(\frac{35}{3} \cdot 2^{n-1}, \frac{4\sqrt{14}}{3} \cdot 2^{n-1}\right) \end{aligned}$$

인 점을 R이라고 하면, (9)에 의하여

$$\begin{aligned} \overline{O_{n+1} R}^2 &= \left(\frac{35}{3} \cdot 2^{n-1} - 3 \cdot 2^{n-1}\right)^2 + \left(\frac{4\sqrt{14}}{3} \cdot 2^{n-1} - 0\right)^2 \\ &= \left\{\left(\frac{26}{3}\right)^2 + \left(\frac{4\sqrt{14}}{3}\right)^2\right\} (2^{n-1})^2 = 100(2^{n-1})^2 = (10 \cdot 2^{n-1})^2 \\ &= \overline{O_{n+1} O_{n+3}}^2 \end{aligned}$$

이고 $\overline{O_{n+2} R} = \overline{O_{n+2} O_{n+3}}$ 이다. 즉, 점 O_{n+3} 과 점 R은 점 O_{n+1} 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고, 마찬가지로 점 O_{n+3} 과 점 R은 점 O_{n+2} 로부터도 같은 거리에 있다. 따라서 제시문의 조건 (다)에 의하여 점 $R = O_{n+3}$ 이고 점 O_{n+3} 의 좌표는

$$\left(\frac{35}{3} \cdot 2^{n-1}, \frac{4\sqrt{14}}{3} \cdot 2^{n-1}\right).$$

[15]

직선 $O_n O_{n+1}$ 이 축 위에 있고, (14), (15)에 의하여 점 O_{n+2} 와 점 O_{n+3} 의 y 좌표가 같으므로, 직선 $O_n O_{n+1}$ 과 직선 $O_{n+2} O_{n+3}$ 은 서로 평행하다.



VI 2022학년도 논술전형 합격수기

인문사회계열 합격수기

인문사회계열 합격자 장OO

1. 덕성여자대학교 논술 전형에 지원하게 된 동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2학년도에 논술 전형 성적 우수자로 덕성여대 유아교육과에 입학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유아교육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학구열이 높은 사립 여자 고등학교를 나와 내신 성적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성적을 중요시하는 유아교육과 입시를 준비할 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학교에서 희망자에 한해 논술 공부를 지원해준다는 말에 논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논술 전형은 다른 수시 전형에 비해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논술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하지 않게 입시를 이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덕성여자대학교 논술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말씀드렸드시피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논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논술 전형에 대한 기본 정보와 글쓰기 방법, 학교별 특징까지 세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글쓰기의 유형과 각 유형별로 어떤 구성요소가 들어가야 하는지 등을 공부하고 실제로 글을 써보며 논술 전형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학교별 모의논술과 기출문제를 풀며 본격적으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 뒤에는 예시답안을 참고하여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찾고 답안을 다시 수정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논술 공부와 수능 공부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덕성여자대학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성적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의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을 필수로 요구하고,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해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학교의 논술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교재 속에서 출제됩니다. 따라서, 수능 공부는 곧 논술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예시답안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별 논술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풀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시답안을 보면 내가 더 유의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답안을 보며 다양한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시답안을 참고해 내 답안을 채점한 뒤 수정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글쓰기에 정말 재주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논술 공부를 하면서 많이 좌절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논술은 답이 정해진 글쓰기이기 때문에 알맞은 정답을 찾아 글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논술 전형은 다른 수시전형에 비해 모집인원도 적고 경쟁률도 높아 더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작성해 온 나의 답안들을 보며 나의 강점을 찾아 강조하며 자신감을 쌓을 수 있었고, 실제로 논술고사장에서도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4. 덕성여자대학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TIP이 있다면?

먼저, 저는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글을 작성하고 학교의 예시답안을 참고해 첨삭하는 것은 물론, 함께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문제를 풀며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어보니, 논술 공부를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글을 작성할 때는 가장 먼저 제시문의 유형과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읽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시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글을 읽어야 합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은 뒤에는 내가 글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간단히 메모하며 정리합니다. 제시문의 핵심어와 내가 글에 넣고 싶은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작성하고 난 후에는 다시 읽어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작성할 때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나는 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독자를 고려하여 문장을 간결하게 작성해야 깔끔한 글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계열 합격수기

자연계열 합격자 류OO

1. 덕성여자대학교 논술 전형에 지원하게 된 동기

저는 사실 덕성여자대학교와 많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존경하던 교생 선생님과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소속된 동아리에 인상 깊은 실험 수업을 진행해 주신 강사님께서는 덕성여대 재학생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학교에 대한 애정을 입학 이전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각 대학별 모집 요강을 보던 중 덕성여자대학교가 전면 자유전공제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진로가 확고하지 않았던 수험생 시절 저는 1학년 때 다양한 전공을 맞볼 수 있다는 것이 큰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능 수학 선택 과목에 비해 수학 I, 수학 II에 더 자신이 있었던 저에게는 출제 범위에 선택과목 비중보다 공통과목의 비중이 큰 우리 대학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외에도 논술 고사가 수능 이후라는 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계열 선발로 타 대학에 비해 다수의 학생을 선발한다는 점 때문에 우리 대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덕성여자대학교 논술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사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수능 위주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논술 전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학을 공부할 때 정확한 개념과 증명 과정을 숙지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단순히 스킬을 적용하는 풀이와 더불어 교과과정 내의 개념을 활용한 정석적 풀이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평소 공부 습관이 논술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는 덕성여대 기출문제와 모의 논술 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험의 방향성과 난이도를 파악하고 예시 답안을 참고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시험 전달 교과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으며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당일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3. 덕성여자대학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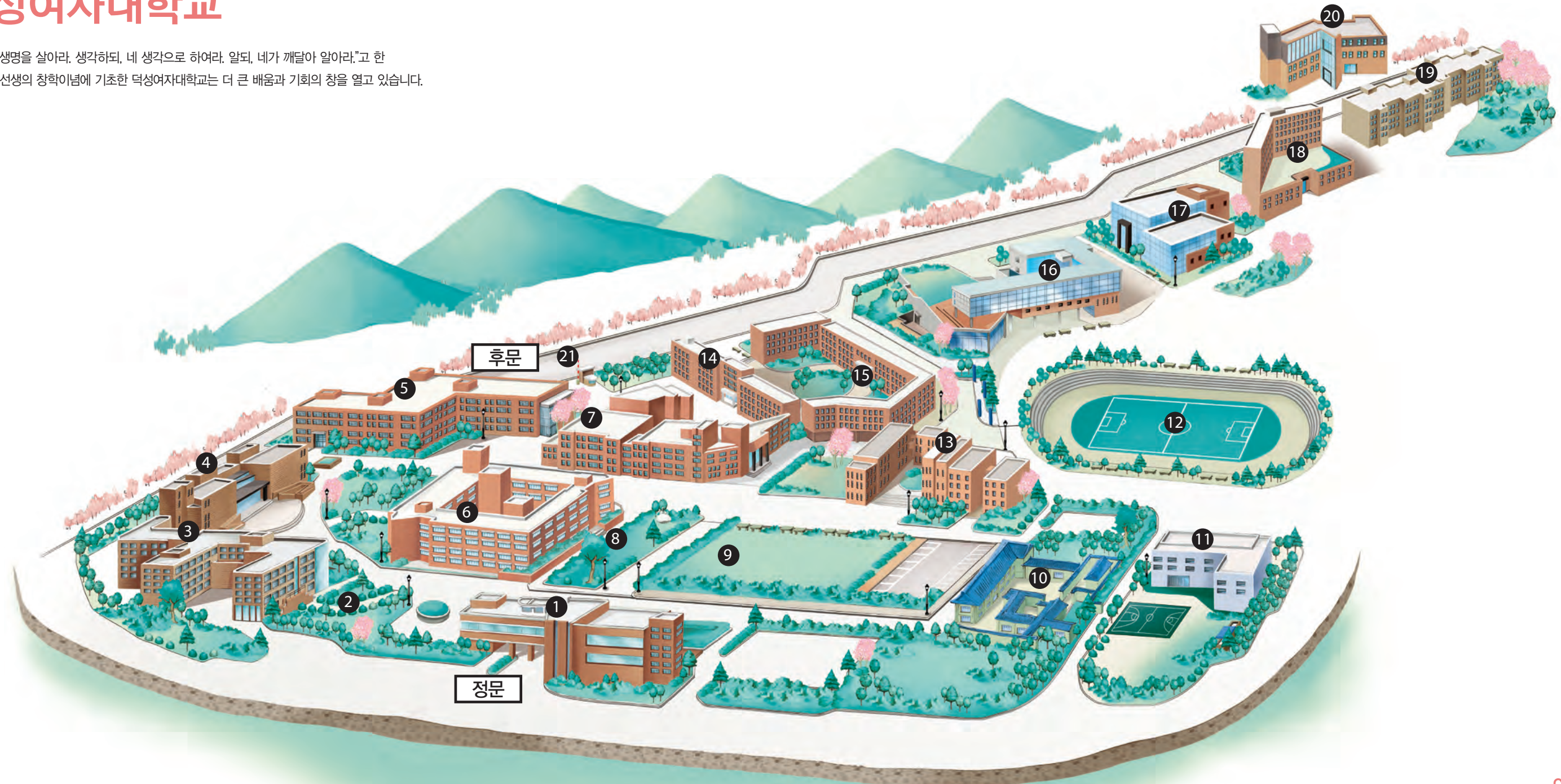
우리 대학의 논술 고사는 교과서와 EBS 교재를 충실히 공부한다면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됩니다. 여러분은 기본 개념에 충실하시되 남들보다 꼼꼼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수리 논술은 기본적인 수학 실력이 나쁘지 않고 정확한 개념에 대한 숙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수능 공부도 내신 공부도 결국에는 논술 공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눅들 필요도 없고 빨리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합격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논술전형만 준비하는 것은 위험하니 다른 전형에 대한 공부도 성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논술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것만 믿고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히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4. 덕성여자대학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TIP이 있다면?

수능 이후에 논술을 준비할 때는 논술전형에 대해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만 충족되었다면 수능 결과는 논술 성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논술 합격의 문이 좁은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보다 주변에서 논술 합격 소식은 쉽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군데 군데 빈 좌석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성여자대학교

“살되, 네 생명을 살아라. 생각하되, 네 생각으로 하여라. 알되, 네가 깨달아 알아라.”고 한 차미리사 선생의 창학이념에 기초한 덕성여자대학교는 더 큰 배움과 기회의 창을 열고 있습니다.



CAMPUS MAP

- | | | | |
|-------------|---------|------------------|------------------------|
| ① 정문 · 대학본부 | ⑦ 학생회관 | ⑬ 예술관 | ⑱ 국제관 |
| ② 스머프동산 | ⑧ 민주동산 | ⑭ 자연관 | ⑲ 기숙사(가운 I 관, 가운 II 관) |
| ③ 인문사회관 | ⑨ 영근터 | ⑮ 비엔나숲 | ⑳ 국제기숙사 |
| ④ 대강의동 | ⑩ 덕우당 | ⑯ 약학관 | ㉑ 후문 |
| ⑤ 차미리사기념관 | ⑪ 유아교육관 | ⑰ 덕성하나누리관 & 라운센터 | |
| ⑥ 도서관 | ⑫ 대운동장 | | |



덕성여자대학교
DUKSUNG WOMEN'S UNIVERSITY

덕성여자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www.duksung.ac.kr

입학처 홈페이지 enter.duksung.ac.kr

입학상담

방문상담 : 덕성여자대학교 쌍문근화캠퍼스 입학처 차미리사기념관 427호

전화상담 : 02) 901-8189~8190

Fax상담 : 02) 901-8690

덕성여자대학교 쌍문근화캠퍼스_ 01369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종로윤현캠퍼스_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0